

장 영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영아 안전 및 가정안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의식과 실천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희 선

영아안전 및 가정안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의식과 실천

장 영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

김 희 선

인 준 서

김희선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본 연구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영아의 안전사고 발생실태 및 부모의 안전의식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0~3세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69부를 회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 검사 도구는 장영희 등(2003)이 사용한 가정 안전 및 부모의식에 대한 안전체크리스트와 강성희(2004)의 부모용 안전의식 측정 설문지 문항 중, 영아기에 해당하는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정안전환경과 안전실천, 안전지식, 위험지각의 4가지 영역을 살펴보고 이들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영아 안전의식과 가정안전환경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영아기 자녀를 위한 가정 안전환경은 어떠한가?
2.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안전실천은 어떠한가?
3.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안전지식은 어떠한가?
4. 영아기 자녀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위험지각은 어떠한가?
5. 부모의 안전환경, 안전실천, 안전지식, 위험지각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9.1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징 및 문항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안전 환경, 안전 실천, 안전 지식 및 안전 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정안전환경

가정안전환경은 총 15점 만점에 평균 8.88점으로 나타났다. 가정안전환경의 현황 중 가정 내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화상의 원인이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로 나타난 반면에, 가장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욕실에 미끄럼 방지용 매트가 깔려 있지 않다’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가정내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욕실바닥 미끄럼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미루어볼 때 욕실에서 쉽게 일어나는 미끄럼 사고를 가정 내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으로 판단하여 욕실에서 일어나는 미끄럼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안전실천

부모의 안전실천정도는 총 15점 만점에 평균 12.30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실천을 잘 하는 항목으로 ‘영아를 혼자 두고 외출하지 않는다’로 나타났으며, 가장 실천이 낮은 항목으로 ‘눈, 비, 야간에 밝은 옷을 입히거나 야광밴드를 옷에 붙여주지 않는다’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영아와 항상 함께 보내므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실천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안전지식

부모의 안전지식의 정도는 총 29점 만점에 평균 16.56점으로 나타났다.

안전지식 영역을 교통, 화재, 익수(사), 질식, 기타 등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알아본 결과 교통, 중독, 화재, 추락, 익수, 질식,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영아안전에 대한 지식정도에 대해 응답한 결과, ‘매우 잘 안다’고 생각한 부모는 2%에 불과했으며 ‘보통이다’로 응답한 부모가 48%로 가장 많았고, 약간 알거나 약간 부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50%를 차지했다. 이는 부모들이 영아기 자녀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에 따른 정확한 지식전달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4. 영아의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위험지각

대부분의 부모들은 위험성에 대해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부모가 영아에게 상해 입힐 가능성에 대해 알아본 결과 화상, 추락, 화재 순으로 높은 원인으로 응답하였고 익사를 가장 낮은 원인으로 보았다. 이는 가정안전환경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화상의 원인이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5. 가정안전환경, 안전실천, 안전지식, 위험지각 간의 상관관계

이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두 서로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안전지식과 위험지각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모의 안전지식이 많을수록 영아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민감하게 의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모가 가정 내에 안전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안전지식과 안전실천 정도를 향상시켜 줄 필요성이 있으므로 영아 안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통해 보다 안전한 가정환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연구의 제한점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7
1. 영아기 발달 특징 및 가정내 안전사고 유형	7
2. 안전의식	23
3. 안전환경	25
4. 부모의 안전교육 실태	28
5. 외국의 부모안전교육	30
III. 연구방법	38
1. 연구대상	38
2. 검사도구	40
3. 연구절차	40
1) 예비조사	40
2) 본 조사	41

4. 자료 분석 및 해석	41
IV. 결과 및 해석	43
1. 가정안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의식	43
2. 부모의 가정안전실천 현황	46
3. 부모의 가정안전지식 현황	50
4. 부모의 위험지각 현황	56
5. 안전환경, 안전실천, 안전지식, 위험지각간의 상관관계	64
V. 논의 및 결론	66
1. 논의 및 결론	66
2. 제언	79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영아 발달 시기별 안전사고 발생 특성	16
〈표 2〉 장소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수칙	26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39
〈표 4〉 문항별 안전 환경	44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안전환경 총점	45
〈표 6〉 영아 안전에 대한 실천정도	47
〈표 7〉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영아 안전에 대한 실천정도	49
〈표 8〉 주제별 안전지식 총점	50
〈표 9〉 교통안전 및 화재안전 항목에 대한 지식	51
〈표 10〉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안전지식 정도	53
〈표 11〉 의사안전, 추락안전, 독극물 안전 항목에 대한 지식	54
〈표 12〉 질식 안전 및 기타 항목에 대한 부모의 지식	55
〈표 13〉 영아 안전에 관한 지식정도	56
〈표 14〉 영아 안전에 대한 의식정도	57
〈표 15〉 원인별 영아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정도	58
〈표 16〉 대상별 영아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정도	59
〈표 17〉 최근 영아 안전사고 사례 분석	60
〈표 18〉 안전환경, 안전실천, 안전지식, 위험지각과의 상관관계	6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영아기 때부터 아동기의 사고 예방률 기준에 따라 선진국 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만14세 이하의 안전사고 사망률이 최고수준이라는 보고도 나왔으나 (UNICEF,2001), 일례적인 자료 외에도 그동안 간과해왔던 안전사고로 인한 영구적인 손상을 놓고 본다면 더욱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사고대상의 연령이 아주 어린 영아들의 안전수준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영아’를 대상으로 안전을 고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영아들은 발달이 미성숙하여 자신의 신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으며,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고 예측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부족한 특성으로 인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현대에는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영아의 질병에 의한 사망률은 낮아지고, 대신 사고로 인한 사망이 높아지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2003). 이렇듯 영아의 안전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기에 영아를 돌보는 가정이나 생활환경, 보육기관에서 그 책임이 따르지만 가장 중요한 부모가 영아의 안전에 소홀할 때 사고는 더 자주 발생하게 된다. 더군다나 영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아기의 부모는 ‘보육자’로서의 역할이 크다. 모든 것을 어른에게 의존하는 시기인 만큼, 부모는 수유, 수면, 배설 등의 생리적 활동에서 영아가 만족감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보아주어야 한다.

서울시 소방 방재 본부에서 조사한 결과, 2002년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전체사고 중 58%로 가장 높았으며(소방 방재청, 2003),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5개국의 안전사고를 비교한 조사에서도 만 1~4세 아동 사망률 1순위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로 보고되어지고 있다(강성희, 2004; Ellsaber & Berfenstam, 2000).

이렇듯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유발되는 요인을 분석하고 파악해서 반복되는 사고를 최소화 시키고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사고의 90% 이상이 사전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식한다면 평소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정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현재의 안전의식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안전지식을 제안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영유아 안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많은 연구자(김경희, 2003; 김대원, 1996; 김은경, 김재영, 2003; 박희숙, 2003; 이영희, 2004; 이은선, 2002; 이재연, 2001; 윤지영, 2004; 하나미, 2000)들이 유아교육기관, 또는 보육기관에 대한 안전 실태를 발표하였으나 이 연구들은 보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와 개선방안의 점검이었고, 사실상 영아를 직접 돌보는 성인, 즉 영아의 안전에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부모에 대해서는 언급하

지 않았다.

현재 진행된 선행연구들(강영은, 남혜경, 2002; 곽은복, 2000)은 사고 당사자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교육기관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아울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실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강성희, 2004; 김정희, 2003; 이재연, 2001), 아직도 대부분이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이므로 영아 안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보육시설의 시설장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환경을 조사한 연구는 많으나(김은경, 2003; 김재영, 2003; 남혜경, 2002; 박희숙, 2003), 가정에서 보내는 영아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었다. 따라서 보육시설 못지않게 중요한 환경요인인 가정에서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지고 영아에게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는 적합한 가정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영아 사고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양육자의 안전의식에 따라 영아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때, 부모의 안전의식에 대한 수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영아가 지내고 있는 가정의 안전 환경 및 부모의 안전의식을 조사하여 영아 안전의 중요성을 고무시켜 주고, 나아가 부모에게 안전에 대한 민감성을 심어주어 영아 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이 마련되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아 가정환경을 살펴보고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앞에서 진술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아기 자녀를 위한 가정 안전환경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안전실천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안전지식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영아기 자녀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위험지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5. 부모의 안전환경, 안전실천, 안전지식, 위험지각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 1) 표집대상이 대도시지역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 2) 가정환경 및 안전지식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관찰과 개인면접을 통하여 조사하는 것이 자료수집에서 신뢰도가 높으나, 현실적으로 가정을 공개하는 부모들이 많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이 따랐기에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한 방법을 채택하여 자료수집상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4. 용어의 정의

1) 가정안전환경

가정안전환경은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가정환경 안전도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가정에서 얼마나 안전에 민감하게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지에 관한 정보이다.

2) 안전지식

안전지식은 상해를 일으키는 원인 또는 자녀를 상해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는 방법과 같은 영아 안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며 교통, 화재, 익수(사), 추락, 중독, 질식에 대한 지식에만 국한하여 사용한다.

3) 안전실천

안전실천은 영아기 자녀의 상해예방을 위한 수단의 반복적인 수행이나 행동, 습관 등을 의미한다.

4) 위험지각

위험지각은 영아기 자녀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 및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각에만 국한하여 사용한다.

5) 안전사고

가정 내의 부모의 과실로 발생하는 영아의 신체적, 정신적 손해 또는 사망사고를 말한다.

6) 영아기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를 출생에서 3세미만 까지를, 그 시기의 아동을 영아라고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영아기 발달 특징 및 가정 내 안전사고 유형

사고로 인한 손상은 영아기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한 가지로서, 영아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시기별로 영아의 발달 특징을 고려하여 그 단계에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영아기에 사고가 치명적으로 증가하는 주된 요인은 주위 환경의 위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아기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종류와 영아기의 발달 특징을 연관 지어 이해한다면 영아기 안전사고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예방되어 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영아기는 주변의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높는데 반해 신체기능의 발달이 미숙하므로 항상 사고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영아를 돌보는 양육자가 영아의 발달 특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영아를 양육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위험한 환경적인 요인에 더욱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영아기 동안의 주요 성장발달 사항과 사고예방 대책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영아기에 대한 개념도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는데, 태어나서 1세까지를 영아기, 1~3세를 유아전기, 3~6세를 유아 후기로 구분(이연섭·홍순정,1998)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태어나서 생후 만2년이 될 때까지를 영아라 하고 만 4주 미만의 어린이를 신생아라고 하기도 한다(권이혁,1982, 홍혜선,2002,재인용). 여기에서는 영아기 신체발달 특징에 근거하여 영아기를

구분하여 그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누워있는 시기(0~3개월)

이 시기의 영아는 먹기, 목욕하기, 자기, 울기 등의 일상적 리듬을 유지하며 평평한 바닥에서 구르고 놀거나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특성을 가진다. 출생 직후 가진 본능적 반사 능력이 사라지고 신체 협응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단계로서 돌봐주는 양육자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한다(강성희,2004). 출생 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반사 운동을 나타내고 점차 신체의 여러 부분은 통제적이고 협응적이게 되며,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데 있어서 차이점을 알아내는 감각 능력이 정교해진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영아는 안전감과 신뢰감의 감정을 발달시킨다. 따라서 주양육자는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적절한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형성된 안정감이나 신뢰감은 다른 사람과의 안정적 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아기가 누워서 자고 있거나 엄마에게 안겨 있는 시간이 많은 때이므로, 아기 스스로 움직이다가 사고를 당하기보다는 주위의 실수로 인한 경우가 많다. 이 시기에는 육아 그 자체가 바로 사고와 연결이 될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이 시기에 주로 나타나는 사고유형은 질식, 즉 숨막힘 사고이다. 이불이 아기의 얼굴을 덮거나 엄마가 젖을 먹일 때 엄마의 유방이 아기의 코를 눌러서 숨이 막히거나, 엎어서 재울 때 질식하는 경우 등으로 나타나며 엄마 젖이 너무 많이 흘러나오는 경우, 또는 우유병의 젓꼭지 구멍이 너무 커서 생기는 사고 등 한동안 숨이 막혀 젖을 토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엄

마의 품에 안겨서 잘 때 가슴이나 몸에 눌러 아기의 코와 입이 막히는 사고도 있으며 누워있는 아기 위로 넘어지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한다. 어린 영아는 목욕물로도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침대에서 낙상하거나 장난감을 입에 무는 과정에서 오염이나 중독, 질식 등에 쉽게 노출된다. 날카로운 물체는 이들에게 심각한 가해환경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으로는 이불에 파묻히거나 머리 위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기의 목 주변에 고무젓꼭지나 그 밖의 다른 어떤 물건도 걸어 두지 않는다. 또한 장난감 끈이 길면 손가락이 묶일 염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우유를 다 먹고 난 후에는 반드시 트림을 시켜 누웠을 때 토하지 않도록 하고 이불은 너무 폭신하지 않은, 약간 단단한 것을 고르도록 한다. 누워있는 시기의 영아는 모든 것을 어른에게 의존하는 시기인 만큼, 부모는 수유와 수면, 배설 등의 생리적 활동에서 영아가 만족감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봐주어야 한다(<http://www.safekids.or.kr>).

2) 일어나서 앉거나 기기 시작하는 시기(4~6개월)

이 시기의 영아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주로 울음을 사용하는데 점차로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되면서 타인과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있게 된다. 영아는 점차 자신의 소리를 인식하고 반복하여 2개월~5개월경에는 쿠잉소리를 내며 4~5개월경에는 단순한 자모음을 반복하는 웅얼이가 나타난다. 웅얼이를 통해 영아는 양육자와의 정서적인 친밀감을 형성해 가며 울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 상태를 표현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머리 부분과 몸체가 다른 신체 부분보다 먼저 발달하는 시기이다. 팔다리나 몸의

근육이 마음먹은 대로 잘 움직여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한 위험 의식도 없어서 앉고 서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넘어진다. 누워있는 시기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는 시기로 접어들면서 영아의 행동반경은 더욱 넓어 지게 된다. 무엇이든 입으로 탐색하려는 시기이므로 주변에 있는 작은 물체를 삼키거나 약품, 유독 물질을 입에 넣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이 시기에 자주 일어나는 사고유형은 침대나 계단, 높은 의자 등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 무엇이든 집으면 입으로 가져가 질식하는 사고, 전기난로나 다리미, 전기밥솥 등을 만져 손을 데는 사고, 뜨거운 물이 든 주전자를 엮질러 화상을 입거나 앉아 있다가 옆이나 뒤로 넘어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등이다. 또한 비닐봉지를 뒤집어쓰고 질식하거나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어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단 양쪽에 난간을 만들어 주고 계단 밑에는 혹여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 충격을 줄여줄 수 있는 깔개나 고무매트를 깔아 놓는다. 그리고 영아의 손이 닿는 곳에 화상 입을 염려가 있는 물건은 미리 치워두고 단추, 시계 건전지, 팝콘, 동전, 포도, 땅콩 등과 같이 영아의 목에 걸리기 쉬운 작은 물건도 즉시 치워두어야 한다. 선풍기는 손이 다치기 쉬우므로 망을 씌워놓는다(<http://www.safekids.or.kr>).

3) 보행기 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시기(7~12개월)

이 시기는 근육 통제가 빠르게 발달하는 시기이다. 수분 간 혼자서 앉아 있을 수 있으며, 기기, 부축 받아 서기, 도움을 받아 걷기가 가능하다. 기기에 있어서 배밑이 형태로 기다가 7, 8개월경에 무릎을 드는 움직임을 시작

하여 팔과 다리를 교대로 사용하는 기기 형태로 변화해 간다. 도움을 받고 한발씩 떼기(3~6개월), 도움을 받고 서기(6~10개월), 도움을 받고 걷기(9~12개월)의 상태로 점차 발달해 간다. 영아는 쥐는 능력이 발달되면서 팔과 손의 근육이 통제되어 사물의 표면을 부드럽게 만지거나 쓰다듬을 수 있다. 그리하여 점차로 집기보다는 부드럽게 만지는 것으로 사물을 탐색한다. 또한 이시기는 주 양육자와의 분명하고 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데 특히, 7개월경에는 친숙한 이와 접촉하려는 적극적인 주도성을 보이고 애착 대상으로부터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인 신호를 보내기도 한다. 용알이를 통해 이 시기의 영아는 신체적 언어 기제를 통제하게 되어 2, 3음절의 소리를 연합시킬 수 있고 자신이 낸 소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성인의 소리를 모방할 수 있다. 또한 책읽기를 좋아하여 영아에게 소리 내어 읽어 주면 언어발달을 촉진하게 된다(강성희, 2004).

이 시기의 영아는 보행기를 타면서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주위를 탐색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기해하며 궁금해 한다. 또한 바깥에 나가고 싶은 욕구가 많아지고 어른과 타인의 움직임을 모방하기 시작한다. 1세 된 영아의 뇌는 성인의 뇌 무게의 70%와도 같지만 신체의 다른 부분은 성인에 비해 덜 발달되어 있어서 신체적 불균형이 심하여, 앉고 서는 성장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기 때문에 머리 부분의 보호가 요구된다. 이렇듯 기고 앉고 서고 이동하는 등의 발달 운동적 행동이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그것은 신체적 균형감에 영향을 주는 소뇌가 급격히 성장하기 때문이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따라서 이동 중에 충돌사고가 잦아지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경험하면서 많은 사고에 노출되기도 한다. 작은 물체가 입에 들어가면 질식 할 수 있으며 어딘가에 기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낙상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 영아들은 이동능력은 있으나 시야가 좁고 키 보다 높은 곳을 보지

못하면서 탐색하려는 시도로 인해서 성인이 방치해둔 커피와 다리미 등의 뜨거운 물체로 인한 심각한 화상에 노출된다(강성희, 2004).

이 시기에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은 식탁보를 당겨서 음식이나 그릇 등의 위험한 물건이 아기에게 쏟아지는 사고, 높은 창이나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추락사고, 붙잡고 일어서려다 테이블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 욕조 안을 들여다보다 욕조 속으로 고꾸라지는 사고, 추락 및 충돌사고로 인한 골절이나 머리에 상처 나는 사고 등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http://www.safekids.or.kr>).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기어 올라가서 떨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욕조나 세탁기, 베란다 등에 영아 혼자 던고 설만한 발판을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식탁보 자락이 길게 늘어지지 않는 것으로 바꾸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좋으며 영아 주변에 가구나 물 등이 있을 때는 감시하여 잠깐 동안이라도 영아 혼자 두지 않도록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4) 걸음마 시기(13~24개월)

걸음마 시기에는 안정감과 조절력을 보다 많이 획득하여 흔들림 없이 똑바로 일어설 수 있고, 난간이나 손을 잡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있다. 또한 영아는 쥐기에서 보다 더 세련된 통제력이 발달하나, 손에 쥐고 있던 사물을 놓는 것에는 어려움을 가지므로, 종종 던지는 것처럼 보인다. 18개월이 지나면 소근육 운동이 발달하고 손가락과 손목의 통제력이 증가되어, 사물을 비틀고 돌릴 수 있으며, 손에 쥔 사물을 보다 더 쉽게 놓을 수 있고, 사물을 떨어뜨리거나 던지는데 있어서도 보다 정확해진다. 걸음마기 영아들은 양육자에 대한 의존성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자기 주장적이며, 자신을 독립

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등의 독립심이 시작되므로 스스로 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다. 양육자는 영아의 독립심을 수용하면서 영아와의 정서적 유대와 안전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시기 영아들은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서적 지원을 필요로 하며, 이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은 긍정적 자아개념의 발달을 강화시킨다. 스스로 해보려는 탐색욕구가 극대화되면서 서랍을 뒤지거나 높은 곳에 기어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이 시기 영아들은 계단 오르내리기, 현관문 드나들기, 창문에 매달리기를 즐기면서 낙상 및 추락사고에 노출되며 욕조나 얇은 수영장에서 놀다가 익사를 당하기도 한다. 영아가 침대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2003~2005년간 4세 이하 영유아 침대 추락사고가 전체의 82.6%를 차지하고 있다(전국핫뉴스 보도자료, 2005.08.04.). 화장품이나 세제, 비누, 욕실용품, 부식제, 등유, 가솔린 등 모든 위험약품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해 중독사고가 흔히 발생하며(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난로나 가습기, 스팀 등으로 인한 화상사고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를 위한 사고예방대책으로는 익사를 피하기 위해 물가에서는 항상 가까이서 지키고 목욕탕 문은 항상 닫아두어야 한다.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포트 등은 영아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라디에이터나 난로 등 다른 열기구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성냥이나 라이터, 뜨거운 음식이나 담배는 영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해둔다. 걸음을 연습하는 단계이므로 집안 곳곳을 다니며 식물을 뜯어 먹거나 약이나 독성물질을 먹을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5) 자립기(25~36개월)

자립기의 영아는 움직임이나 이동성에서 이전 단계의 영아보다 더 유연하고 안정된다. 눈과 손의 협응도 정확해져서 손을 뻗쳐 물건을 쥐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 되고, 간단한 퍼즐이 가능하며, 구슬 꿰기, 블록 쌓기 등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신체를 생각한 것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신체운동의 조절도 잘 되므로, 율동적인 운동이나 음악에 맞추어 몸을 움직이는 일을 좋아한다. 자립기 영아들의 인지 수준은 전개념적 수준에 있다. 전개념적 영아는 자신의 세계에 대해 광범위한 영역의 지식을 구성하고 조직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물건을 분류하고 양, 수, 공간, 시간 등의 개념에 대해 제한적이긴 하지만 사고의 발달이 시작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사고를 한 대로 움직이려 하는 충동성이 보이며 혼자 하려고 시도하는 고집, 모방하고 탐색하려는 욕구가 더욱 많아진다. 이때의 영아들은 주변을 모방하고 탐색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며 운동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시도로서 달리기를 즐긴다. 따라서 넘어지면서 식탁이나 의자 등의 모서리에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다. 이들은 위험한 물체나 용품에 대한 두려움 보다는 호기심이 많고 특히 불에 유혹을 많이 느낀다(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1971; 강성희, 2004, 재인용).

이 시기의 영아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탐색하려는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인식해야 할 것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성인의 감독이 중요하다. 끈이나 가는 실을 가지고 놀다가 질식하는 사고, 사탕을 먹거나 단추, 작은 구슬 등을 삼켜서 질식하는 사고, 뜨거운 열기구에 화상을 입거나 끝이 날카로운 장난감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주변 환경을 안전하게 구비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이렇게 시기별로 알아본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영아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 상해이며 가정내 안전사고가 교통사고처럼 사망률이 높지는 않으나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한다. 무엇보다 가정 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접근은 불의의 사고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예방가능하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아는 것에서 출발하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효율적 중재자는 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성인으로서, 부모는 가장 훌륭한 안전 중재자임을 인지하는 것이다(Tower, Dowswell, & Jarvis, 2001).

영아의 안전사고는 발달적 특성과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영아의 발달특성과 위험요인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면 잠재적인 위험요인이나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영아 발달 시기별로 안전사고의 발생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6, 보육교사 지침서/경기도, 2000.)

<표 1> 영아 발달 시기별 안전사고 발생 특성

시기별	발달적 특성	위험	예방책
출생~4개월 (세상도 내 마음처럼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시기)	먹고 자고 울기 평평한 바닥에 서 구르기 가만히 있지 않 는다	화상 낙상 장난감 날카로운 물체 질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꿈치로 목욕물을 확인한다. · 항상 아기에게서 손을 떼지 않는다. · 아기를 탁자나 침대 위에 둔 채 등을 돌리거나 나가지 않는다. · 삼키지 못하도록 큰 장난감을 선택한다. · 뽀족한 끝이나 모서리가 없으면 깨지지 않는 무독성 장난감을 사용한다. · 핀과 뽀족한 물건을 아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얇은 플라스틱, 벨빵, 지퍼달린 가방과 베개는 질식시킬 수 있다. 단단한 매트리스가 안전하다.
4~12개월 (세상을 탐험해보고 자 시도하는 시기)	잡고 돌아다니기 입안에 물건을 넣기	놀이 영역 목욕 장난감 작은 물체 중독 낙상 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까이에서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 감독 하에서 마루, 유아용 침대, 마당에서 놀게 한다. · 팔꿈치로 목욕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 뜨거운 물의 수도꼭지를 만지지 못하게 한다. · 아기를 목욕탕에 혼자 두지 않는다. · 단추, 구슬, 동전 등은 조심한다. · 이 연령의 영영아는 항상 보호가 필요하다. · 아기를 탁자나 침대 위에 올려놓고 나가거나 등을 돌리지 않는다. 출입구나 계단에 문을 설치한다. · 스팀이나 벽난로 근처에 안전망을 설치한다. · 뜨거운 액체, 뜨거운 음식이나 전기다리미, 토스트기, 커피포트 등의 전기 코드를 유아 손에 미치지 않게 한다. · 단단하고 모서리가 둥근 기구를 사용한다. · 뜨거운 가슴기는 피한다.
1세~2세 (활동의 영역이 넓어지는 시기)	탐색하고 기어 올라가고 문과 서랍을 열어보거나 물건들을 빼내서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	출입문 창문 문 놀이영역 물 중독 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차도, 창고 등으로 통하는 문을 안전하게 닫아둔다. · 계단과 현관에 문을 설치한다. · 바깥놀이터의 철망문은 항상 닫아둔다. ·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재료로 만든 장난감을 사용한다. · 커피포트, 토스트기, 전기다리미, 라디오의 전기코드는 영아의 손에 닿지 않게 둔다. · 영아를 욕조나 얇은 수영장, 찬물에 혼자 두지 않는다. · 모든 약품과 중독물질을 캐비닛에 잠궈 보관한다. · 화장품, 가정용품, 특히 부식제는 유아의 손이 닿지 않게 보관한다. 벽난로, 스팀에 안전망을 설치한다. · 유아를 집안에 혼자 두지 않는다. · 사고예방을 위해 유아를 항상 감독한다.
2세~3세 (호기심을 만족시키려 는 욕구로 더욱 위험해 지는 시기)	불에 유혹을 느낀다. 계속 돌아다닌다. 혼자 하려고 시도한다. 모방하려고 탐색한다. 빨리 달린다. 인내심이 없다.	교통 물 장난감 화상 위험한 물체 놀이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가 길이나 차도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울타리를 치고 교육을 시킨다. · 감독 하에서 얇은 물이나 풀장에서 놀게 한다. ·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고 잘 망가지지 않는 크고 단단한 장난감이 안전하다. · 약품, 가정용품과 정원용 농약, 위험한 연장, 소화기, 정원용 장비 등을 잠궈서 보관한다. · 도구와 부엌용품을 적절하고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친다. · 나이가 들면서 사고가 많아진다. · 방망이, 공, 자전거 등으로 상해 위험이 있다.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으로서 추락과 화재, 화상, 익사, 중독사고, 질식 등을 꼽는다(National Safe Kids Campaign, 1990; Mackenzie, & Associates, 1989, 강성희, 2004, 재인용).

장영희 외(2003)는 0~2세 영아를 둔 부모들이 인식하는 사고의 유형에 대한 결과로 부모들은 영아가 넘어짐(29.7%)의 사고에 이어 중독사고(21.4%), 부딪침(19.8%), 떨어짐(13.2%), 끼임(4.9%), 교통사고(4.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영아의 발달특성상 물건을 입에 넣는 특성으로 인해 중독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0~2세 영아의 상해유형을 살펴보면, 타박상이 23.2%로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화상이 22.0%를 차지했다. 연령이 어린 영아일수록 화상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가정에서 주요하게 발생하는 영아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추락

추락사고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 중 영유아기인 6세 이하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중상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높은 사고유형으로 주요사고원인 물품 및 시설물은 침대, 의자, 베란다, 소파, 책상, 식탁 등에서 일어난다(한국소비자보호원,2003). 추락사고는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에서부터 걸음마 시기에 무엇인가를 타고 올라가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두부손상, 골절을 포함하여 응급실에 내원하는 주요한 원인이다(Morrison et al., 1999,강성희,2004,재인용).

추락은 신체 동작 시 무게 중심의 변화와 연관되는데, 영아들은 자세를 바꿀 때 신체의 균형을 잡는 기술이 미숙하다. 따라서 높은 곳에서 몸을 지

나치게 앞으로 기울일 경우에는 무게 중심의 변화를 쉽게 감지하지 못해 넘어지게 되는 것이다(이기숙 외, 1997). 그러므로 가정내 추락과 관련해서는 계단의 안전문 설치, 창문의 추락방지용 보호난간의 설치, 베란다 고정창문 및 아파트나 건축구조 재점검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길만이 영아 추락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추락을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관심 속에 추락사고 예방에 성공을 거둔 예로서, 미국 뉴욕에서는 영유아가 추락으로 인한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에 주목하고 ‘아이들은 날 수 없어요(Children Can't Fly)’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가정의 창문에 추락방지용 안전보호대 설치를 홍보하고 규제함으로써 추락으로 인한 상해율이 50%, 사망률이 35% 감소하였다(Spiegel & Lindaman,1977). 이렇듯 가정에서 영아의 추락사고 문제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2) 화재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는 영아들에게 가장 위험한데, 이것은 성인의 도움 없이 대피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화재로 인한 사망을 최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연기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화재경보기와는 다른 것으로 단독형 감지기를 말한다. 미국화재예방협회(1997)에서는 연기경보기가 작동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률이 50% 이상 감소하여 가족이 살아남을 확률이 2배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로부터 영아를 보호하는 것은 연기경보기 뿐만 아니라 유독성 연기(toxic smoke)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냥, 라이터, 담대 등이 가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주요한 원인이기 때문이다. 가

정에 방치된 담배와 라이터는 영아에게 위험한 놀잇감이 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해 행위이다. 난방으로 인한 화재의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난로 구입 시 안전장치가 설치된 난로를 구입하고 난로 주위에는 불이 붙을 만한 물건을 모두 없애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3) 화상

주방에서 사용하는 조리 기구는 열을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이들의 화상에 늘 주의해야 한다. 가정에서의 화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방의 전열 기구를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1m 이상의 높은 곳에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코드가 아래로 늘어져 있을 경우 코드를 당겨서 기구를 떨어뜨려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짧게 묶어 두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식탁보 역시 끌어당기면 뜨거운 것이 아이에게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들 외에도 끓고 있는 냄비 등에 손을 댄다거나 가스레인지의 테이블, 가스오븐의 전면 유리에 손이 닿으면 살이 연한 아이들은 화상을 입기 십상이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위해요인은 끓는 물이나 수도꼭지를 통해 흐르는 뜨거운 물이다. 예를 들어, 만4세 이하 영유아는 피부가 성인에 비해 매우 얇으므로 48°C의 물에 3초만 노출되어도 3도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ttp://www.safekids.org>). 이러한 영아의 화상을 예방하고자 뉴질랜드 상해예방조사기관에서는 위험요소 확인과 극복방법의 하나로 ‘뜨거운 물은 불과 같아요(Hot water burns like fire)’라는 대규모 캠페인의 전개를 통해 수온자동조절장치부착을 전개하여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Chalmers &

Langley,1999, 강성희,2004,재인용). 미국도 1991년 목욕물의 수온을 48°C 이하로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계도하는 교육을 국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화상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든 예가 있다(Erdmann, Feldman, & Rivara, 1991, 강성희,2004,재인용).

(4) 중독사고

한국소비자보호원(2003)의 ‘가정내 어린이 중독사고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1~2003년 3월말까지 접수된 14세 이하 어린이 중독사고 127건 중 89.0%가 만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한 사고였다. 어린 아이들에게 아스피린이나 신경 안정제 등의 과다 투여는 다른 약보다 특히 해롭다. 약이 주방 싱크대나 화장대 위에 있을 때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러므로 모든 약은 잠겨 있는 캐비닛이나 서랍 안에 보관해야 한다. 먹고 남은 약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약은 내용물을 싱크대에 부어버리고 용기를 씻어서 따로 버려야 한다.

영아들은 위험한 독성 제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중독사고의 예방은 사회 전반 및 성인들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1994년 영국의 쇼핑몰에서 21개월 된 영아가 인체에 해로운 애완견 목욕용 샴푸를 마신 사건을 통해 이것이 손에 닿고 열리기 쉬웠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사건 이후 모든 가게에서는 유독성 물질에 ‘위험’표시를 하고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진열할 것을 규제하였다(Frederick et al.,2000,강성희,2004.재인용). 우리나라도 유독성 제품의 용기뚜껑이 쉽게 열리는 사고로 인해 영유아가 잘못 마실 경우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화장용 아세톤과 베이비오일의 뚜껑에 안전마개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1970년부터 각

종 용기에 안전마개 사용을 의무화한 법안에 별도로 제정되었다(YTN기사자료, 2005년 06월 16일). 유독성 제품에 의한 사고 시 조기에 처치하지 않으면 심한 뇌 손상의 원인이 되며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5) 질식사고

질식은 영아가 입으로 동전, 땅콩, 장난감 등을 잘못 넣어 기도가 폐쇄되면서 숨을 쉬지 못하는 안전사고이다. 대개의 영아들은 놀잇감이나 고탄음식을 입안에 물고 노는데 이 때 갑자기 웃거나 울든지 또는 넘어지면서 입에 넣고 있던 물건이 입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이기숙 외, 1997). 또한 아이스박스나 냉장고, 세탁기 등은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품이므로 위험하지 않을 것 같지만 영유아가 비품 속에 숨었다가 질식하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아이가 이러한 비품 속에 들어갔다가 문이 닫히게 되면 공기가 차단되어 아이의 비명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과일이나 과자와 같은 먹는 것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붙여놓지 않아야 한다. 즉 소형 자석을 냉장고에 메모 부착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아이가 입속에 넣어서 질식할 위험이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SAFE Kids Korea(2000)가 만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만0세~4세 영유아 질식사고 사망률이 전체의 89.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FE Kids Korea기사자료, 2002년 04월 29일). 또한 만1세 이하의 영아들은 폭신한 이불에서의 수면이 질식사를 유발한다고 하는데(한국소비자보호원, 1997),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성인용 이불에서 뒤로 옆

어 잠재우는 것을 피하고 가능하면 한국산업규격에 구분된 유아용 이불 (88cm×110cm, 110cm×130cm)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소비자 안전넷(2005)에서는 위해정보시스템으로 보고된 위해정보 (2002.1~2005.8)를 분석한 결과,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는 총 10,117건이며, 이 중 영유아 안전사고가 69%(7,003건)를 차지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는 총 729건으로 전체 어린이 삼킴 사고(808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사고는 1~3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65.7%)하는데 이는 큰 어금니가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데다 호흡수가 성인보다 빠른 신체적 특성과 강한 호기심, 무엇이든 삼키는 행동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 위해사례 건수는 총 729건으로, 2002년 153건, 2003년 165건(7.8%증가), 2004년 228건(38.2%증가), 2005년 8월 183건 (11.6%증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용품에 대한 내구성 등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결함정보에 대한 보고제도를 도입, 시판품 조사 및 리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가정 내 영유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촉구하고 있는 중에 있다.

(6) 협착·끼임 사고

협착·끼임 사고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 중 7세 이하 취학전 어린이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중상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사고유형이다. 주요 사고원인은 현관문이나 대문, 창문에 손이 끼여 절단하거나 압제손상 등을 당하는 사고가 전체 142건 중 57.0%(81건)이었으

며, 그 외 싱크대, 장롱, 자전거 체인에 의한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2003).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은 ‘아파트 및 단독주택 현관문’의 어린이 손가락 끼임 사고 위험 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현관문을 자동으로 닫는 도어 클로저(door closer)가 협착이나 끼임 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영유아가 있는 각 가정에서는 도어 클로저 내부에 충격완화장치(강압밸브)를 설치하여 무게 또는 인위적으로 현관문을 닫거나 바람 등에 의해 갑작스럽게 닫힐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협착·끼임 사고의 예방을 위해 현관문 경첩의 틈새에 영아의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틈새에 합성수지나 고무 등을 부착하는 등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2. 안전의식

안전에 관련된 조사연구들(강성희, 2004; 장영희 외, 2003;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에서 영유아들이 가정에서 안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빈번하게 안전사고에 노출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동의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 및 보호자의 자녀안전에 대한 의식전환 및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는 곧, 아동생활의 기본적인 장이 가정이고 가정에서부터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기 때문에 가정의 책임자인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유아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부모의 안전의식 부재로 인해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의 98%가 예방 가능한 사고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결국 영아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모 및 보호자의 자녀안전에 대한

의식전환 및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 국가에서는 이미 아동기 사고예방을 위해서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유아 안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규 제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반드시 부모들을 함께 참여시켜 영유아의 주 양육자인 부모들에게 아동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부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부모들조차도 아이의 안전에 대한 인식조차 미비한 상태이다(장영희 외, 2003). 유아의 안전의식에 대한 인식만큼 중요하고도 시급한 영아를 위한 부모들의 안전의식이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안전훈련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채택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및 대책만을 강구하고 있고, 실제 아동사고율을 감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모를 관련 정책 시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또한 연령을 낮춰서 영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아가 가정 안에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현실에는 심각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다. 부모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아동 안전 관련법에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및 제도가 하루빨리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제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영아 안전사고는 부모와 함께 있거나 부모의 감독 하에 있다고 해도 순간적으로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영아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이러한 주의노력은 보호자의 안전의식 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안전의식을 일깨우는 환경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알람기능이 필요하다.

3. 안전환경

서울시 소방방재본부(2003)에 의하면 ‘2003년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자료’를 통해 50%의 안전사고가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즉, 전체 출동건수 4,437건 중에 가정으로 출동한 경우가 2,694건으로 수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근린생활지역을 포함한 노상, 백화점 등 일반건물, 놀이터 주변보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무려 3배~10배까지 높은 것이었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통계자료(2003)에 의하면 어린이 안전사고 전체 4,752건 중, 56.1%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로 23.9%, ‘도로’가 5.9%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장소를 연령별로 보면, 1~5세 영유아의 경우 ‘가정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66.5%로 월등히 높았으며 6~14세의 어린이의 경우 ‘가정내’ 사고는 31.0%인 반면에 공원, 놀이시설, 운동 및 여가시설 등을 포함한 ‘공공시설 및 서비스’가 39.3%, ‘도로’에서의 사고 11.2%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5세 이하의 영유아의 활동공간이 주로 가정이고 6세~14세 어린이의 경우 집안뿐만 아니라 공원, 놀이시설, 도로 등 활동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각종 영유아 사고 관련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연령별로는 영아,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사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둘째, 사고 장소별로는 가정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더 빈번하게 안전사고를 일으키고 있다(장영희 외, 2003).

한국소비자보호원(2003)의 가정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환경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장소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수칙

장소	가정내 안전 환경
방과 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벽에 무거운 물건을 걸지 않는다. 특히 영아의 손이 닿는 곳에는 아무 것도 걸지 않는다. 벽에 물건을 걸었을 경우 안전하게 걸려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은 테이블 위에 놓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물건이 아이들의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아이의 방에는 가벼운 가구를 두지 않는다. 아이들이 가구를 끌고 다녀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 침대는 보조난간을 설치하고 모서리가 둥근 것을 선택한다. · 창문의 모양에 따라 안전 고리를 설치하고 2층의 창문에는 반드시 안전망이나 난간을 설치한다. · 침대, 소파, 가구 등에 기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장롱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욕실 및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면대 혹은 변기의 윗부분에 유리컵이나 화장품 등을 얹어 놓지 않는다. · 세면대에 매달리거나 변기 뚜껑을 밟고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 욕실 앞 깔개는 뒷면에 미끄럼 방지처리가 된 것을 선택한다. · 욕실 벽이나 욕조 바로 옆에 손잡이를 부착하여 미끄러질 때 잡을 수 있도록 한다. · 바닥에 고무매트나 안전발판 같은 미끄럼 방지 도구를 깔아둔다. · 아이가 비누조각이나 샴푸 등에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비누는 비누 곶에 넣고 샴푸는 즉시 마개를 닫아둔다. · 비누, 치약, 샴푸는 쓰고 난 뒤에 제자리에 두고 세제는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아이가 먹을 수 있다. · 화장실 세탁세제나 변기를 청소하는 솔 등은 변기 위에 놓지 말고 벽장 속에 넣어 잠가둔다. · 아이가 전기면도기나 헤어드라이어를 욕실에서 젖은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한다. · 모든 전기제품은 욕실밖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예방책이나 욕실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욕조나 변기, 세면기 등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보관한다. 반드시 물기가 마른 상태에서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원

	<p>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가 목욕할 때는 항상 물의 온도를 확인하고 수도꼭지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뜨거운 수도꼭지를 아이가 만지지 못하게 한다. · 3세 미만의 아이는 욕조에서 익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혼자 욕실에 두지 않는다.
주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뜨거운 물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한다. · 냉장고 문이 잘 닫혀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 부엌바닥은 미끄럽지 않도록 가능한 왁스칠은 하지 말고, 물기는 즉시 닦는다. · 싱크대 문을 열고 닫을 때 아이들의 손가락이 문에 끼지 않도록 모든 찬장과 서랍은 줄을 이용하여 묶어두는 등의 잠금 장치를 하거나, 손쉽게 열 수 없도록 버튼용 개폐방지 손잡이를 부착한다. · 칼이나 포크, 가위, 채칼, 열려있는 깡통 등 날카로운 물건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튀김요리 등 기름을 사용할 때 장소를 잘 선정하여 화상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특히 튀김용 냄비 등을 바닥에 아무렇게나 두지 않는다. · 취사 중에는 아이가 부엌에 오지 못하게 하고 전기밥솥의 증기로 인한 화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아이가 쓰레기통을 뒤질 수 있으므로 날카롭고 예리한 물건을 버릴 때는 매우 조심한다.
창문, 베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문, 베란다에는 창문보호대나 난간을 반드시 설치한다. 방충망으로는 안전하지 못하다. · 아이가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거나 베란다 난간에 기대서지 않도록 한다. · 문이나 창문에는 잠금 장치를 하여 아이가 혼자서 창문을 열 수 없도록 한다. · 창문 가까이 가구나 영아의 시선을 끄는 물건을 두지 않는다. · 베란다에는 아이가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의자, 상자 등을 치워둔다.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면이 미끄러운 건축자재를 사용하거나 미끄러운 왁스칠을 하지 않는다. · 계단에는 충분한 높이의 튼튼한 난간을 양쪽에 설치한다. · 난간은 계단이 끝나는 지점까지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한다. · 계단은 항상 밝게 조명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물체나 물기가 없어야 한다. · 계단 옆의 벽에 아이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걸지 않는다. · 아이가 계단을 올라갈 때 보호자는 반드시 아래쪽을 걸어간다. · 계단에 날카로운 부위 등 위험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출처: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4. 부모의 안전교육 실태

‘부모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장영희 외, 2003)에서는 부모의 안전교육 경험실태 부분 중,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부모의 25%만이 지난 1년간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75%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대상 안전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안전교육을 받은 경험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60.1%, 조금 그렇다는 37.8%로 대부분의 부모들이 받은 안전교육에 대해 만족하였다. 그러나 안전교육의 경험이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설명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지루하다가 44.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31.9%), 실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13.3%), 안전교육에 관심이 없다(6.2%)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받은 안전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29.0%)과 화재(24.7%)에 관한 교육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성폭력과 미아, 유괴 등에 대한 신변(11.5%), 놀이(8.5%), 추락(8.0%), 익사(6.8%), 가정(6.8%), 중독(3.3%), 기타(1.3%)순으로 나타났는데 가정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은 전체의 6.8%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전체 부모의 9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모들은 부모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안전교육 내용의 1순위로 성폭력에 대한 안전교육(14.4%)을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유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낯선 사람에 대한 안전(13.1%), 응급 처치법(10.8%), 화재안전(9.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안전교육 내용 중 상위 30%에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자녀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신변 관련 사고가 많은 현실에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변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들이 안전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아를 가진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과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비해 부모들은 안전 환경에 대한 교육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무엇보다 영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장영희 외 4인(한국생활안전연합,2003)의 연구 중,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이 실시될 경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부모의 92%가 참여하겠다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며 앞으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강성희(2004)의 연구논문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가정은 드러나지 않는 사고의 사각지대로 영아와 부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 왔지만 예방적 차원의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안전의식 및 태도의 변화, 안전지식의 증가라는 부분을 검증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총 10회기의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를 담고 부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기에 제한적인 부분도 많았으나 향후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연구자들은 그 접근법에 있어 단순한 의료적 차원의 지식이나 단편적 안전지식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건강모델의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했다.

5. 외국의 부모 안전교육

(1) 미국

1999년 미국의 경우 11세 이하 어린이 중 적어도 16명이 장난감 사고로 사망했으며, 이 중 75%는 4세 이하였다. 사망사고의 원인은 풍선이나 작은 장난감, 장난감의 일부분을 잘못 삼켜서 발생한 질식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 용품으로는 아기용 침대가 가장 높은 사고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 다음은 아동용 침대로 나타났다. 1999년 한 해 동안 14세 이하 아동 540명이 가정내 화상사고로 사망했으며 550명이 질식사고, 340명이 가정내 혹은 집 주변에서 익사하였다. 또한 70명이 낙상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60명이 중독사고, 60명이 가정내 총기사고로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450만 명이상의 아동이 가정내에서 발생하는 상해로 인해 병원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는다.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실시하는 부모안전교육은 교육기관을 통해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통해서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특징은 전미소아과학회를 중심으로 소아과를 방문한 부모들에게 아동안전에 대한 리플렛을 비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 대한 프로그램,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즉 사고위험성이 높은 저소득층 가정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Head Start 프로그램, 신혼부부와 예비 신부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위해 안전한 가정을 조성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아이의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가정내 안전사고를 감소시키려는 목적으로 형성된 Baby Safety Shower 프로그램, 베이비시터(babysiter)를 지원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BABYSITER를 위한 안전교육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놀라운 것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예비부모를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예비부모들의 아동안전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켜 이후 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아동의 사고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는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있다.

(2) 영국

영국의 0~4세 아동사망 사고 실태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76명, 1999년에는 86명이었는데 그 원인으로서는 익사, 화상, 추락의 순이었다. 가정 안에서의 장소별 사고유형을 보면, 가정 안과 밖에서 발생한 사고비율이 28.4%였으며, 정원과 잔디에서 발생한 비율이 11.8%였다. 또한 거실과 식당에서 발생한 비율은 11.0%, 부엌은 9.3%였다. 특히 0~4세 아동의 경우 집안 내 특정하지 않는 곳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7,493건이며, 거실과 놀이시설에서의 발생은 6,529건, 침실에서의 사고도 3,436건이었다. 부엌에서의 사고의 발생은 2,771건이었다.

영국의 안전교육 현황과 실시방법을 보면 부모안전교육 지원기관이 따로 있어 교육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5세 이하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특징은 클럽활동을 통해 아동의 교육과 보호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부모의 역할을 중요시하여 부모를 유아 대상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함께 교육시키고 있다. 클럽은 민간단체인 RoSPA(왕실사고방지협회)내에 설치된 Tufty Club과 정부에 의해 조직된 Traffic Club을 들 수 있다. Tufty Club은 민간단체인 RoSPA에 의해 1961년 결성되었으며, 유아원과 유치원 등 기존조직을 모체로 하여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단위로 결성되어 있다. 그 외에도 가정방문을 통해서, 대중매체, 캠페인을 통한 안전교육도 실시되고 있다.

영국의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은 교통안전, 가정안전이 중점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일정한 형태를 가진 프로그램보다는 아동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교사나 조연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대중매체를 통한 캠페인에 의해 아동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어릴 때부터 클럽활동을 통해 아동안전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아동안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게 하며, 학령기 아동을 둔 부모들은 교육기관에서 부모안전 관련 지침서와 리플렛을 일괄 구입하여 부모에게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부모에게 배포되는 안전교육 자료는 정부 및 전문기관에 의해 비디오, 책자, 리플렛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어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그 첫째로 Traffic Club이 있는데 자녀의 연령이 3세가 되면 부모에게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자료와 교통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5개의 책자를 보내며, 클럽의 회원이 되면 3년 동안 아동안전과 관련된 5개의 소책자를 받아 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로 The Accident Notebook 프로그램은 신생아부터 5세 이하 아

동의 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신생아부터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사고노트를 사용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사고노트는 A5크기의 노트로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고가 일어날 만한 위험상황에 대해 적도록 한다. 그런 다음 위험상황에 대해 아동의 발달단계와 연령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를 통해 부모들은 자녀연령에 따른 위험상황과 안전수칙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

세 번째로 예비부모를 위한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모에게 적극적인 아동사고 예방 기술을 인식시키고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가정안전과 관련된 자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지역내 Health Visitor(건강감찰관)은 신혼부부들에게 가정안전과 자료를 제공하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세부정보를 알려준다.

네 번째로 Home Safety Starter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생아 및 영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생아를 가진 저소득층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0개월에서 8개월까지의 영아와 가정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모들은 지역내 Health Visitor(건강감찰관)로부터 Pack을 제공받는다. Pack안에는 비디오 잠금커버, 콘센트 안전덮개, 냉장고 잠금커버, 모서리 보호덮개, 안전리플렛, 건강관련 리플렛, RoSPA의 가정안전 소책자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Home Safety Equipment 프로그램은 4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안전용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가정안전용품을 가정에 설치하도록 하여 부모들로 하여금 가정에서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가정안전용품을 설치한 후, 가정내 환경을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아동안전에 관련된 리플렛을 제공받는다.

(3) 일본

어린이 사고의 예방 및 연구를 위해 후생성 시민장애연구에서 어린이 사고 문제를 거론하였으며, 평성원년(1988)부터 어린이 사고와 그 예방에 관한 연구반이 발족하여 어린이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1993년, 사망통계를 살펴보면 0세의 경우 전체 사망자수 7,263명 중 불의의 사고 및 사망자수는 282명이었는데 기계적 질식, 자동차 사고, 익사, 추락의 순이었다. 1~4세의 경우 전체 사망자수 2,000명 중, 사고 및 유해작용의 사망자 수는 555명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교통사고, 익사, 기계적 질식, 추락, 화재, 화염에 의한 사고였다.

일본의 부모안전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기관을 통한 안전교육, 의료기관을 통한 아동의 건강진단 시기에 따른 안전교육, 안전클럽을 통한 안전교육,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건소와 소아과에서 안전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안전체크리스트는 아동의 발달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연령에 맞추어 지도하고 있다. 부모안전교육 지원기관은 어린이 사고예방 센터, 유아교통안전 클럽, 교통안전운동, 전국 교통안전 어머니 연합회 등의 지원기관으로 전국적으로 안전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4) 오스트레일리아

왕립 어린이병원 안전센터의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 주에 있는 왕립 어린이병원 내에는 어린이 안전센터를 두어 아동안

전정보에 대한 전시를 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모대상 안전교육은 1시간 30분 정도 실시되며 부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응급 처치법, 아동을 안전하게 키우는 방법(중독사고예방법, 화상사고예방법, 안전장치의 사고법), 안전시트의 중요성, 안전 시 센터 내에 Home Safety Shop을 운영하여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사고유형을 전시하고 있다. 또 다른 안전교육으로 영아기 손상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젊은 엄마와 영아를 위한 1년 과정 프로그램으로 쇼핑센터에서의 아기돌보기, 아기를 데리고 다니는 방법, 차를 태우고 카시트를 이용하는 방법, 밥을 먹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주며 아기를 처음 키우는 엄마들의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및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5)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는 가정안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독사고, 화상,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Safety Box'가 개발되었다. 여기에는 보관함(lockers), 창문 추락 방지대(window guards), 난로 안전보호대(stove guards), 연기감지기(a smoke detector), 전기안전플러그(safety plugs for sockets) 등을 포함한 11개 장비가 들어있으며 정부 가정국(Housing Department) 및 지방자치단체(Local Department)의 재정 지원으로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 무료로 제공된다.

(6) 국내 영유아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대책과 향후 과제

우리나라도 영유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2003년을 ‘어린이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범정부적인 어린이 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하였다. 특히 임기 5년간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2007년까지 현재의 1/2수준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여 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법제도 개선, 시설 개선, 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3개 부문으로 나뉘어 범정부 대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부모대상 안전교육 사업이 거의 미비한 형편이며, 부모들의 영유아자녀안전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부모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사업과 대중 홍보 전략을 개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사고 문제와 안전수칙 및 요령을 부모들에게 홍보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연령에 따라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방법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건강 관련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내용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 홈페이지 중 여성을 위해 구축한 사이트에 가정 안전 특히 영아 안전을 위한 정보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사고 예방과 안전교육을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안전클럽의 조직과 활성화가 필요하며 부모와 어린이시청 시간대에 지속적인 어린이안전공익광고와 캠페인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방영함으로써 부모들의 안전의식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라에서 보호자를 위한 안전교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아들의 안전사고는 아직까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가정내 영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 320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출생~3세의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여 실시하였다. 총 320부를 배부하여 269부를 회수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3>과 같다.

응답자 중 어머니가 84%로, 영아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어머니가 가장 많이 응답해 주었다. 자녀의 연령은 1세와 2세가 대부분이었으며, 자녀의 성별은 남아 57%, 여아 43%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연령은 30~35세 이하가 가장 많았고 응답자의 학력은 대학교를 졸업한 부모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주거형태는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부모가 많았으며 가족형태로는 핵가족이 80%를 차지할 만큼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영아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가정이 많았기에 대부분 아버지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어머니가 전업주부로 있는 경우가 많았다.

<표 3>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자녀와의 관계	아버지	36	13.38	주거형태	아파트	162	6.22
	어머니	227	84.39		연립	53	19.7
	기타	6	2.23		개인주택	54	2.07
자녀의연령	1세미만	113	42.01	가족형태	핵가족	214	79.55
	2세미만	149	55.39		대가족	43	15.99
	3세미만	7	2.6		기타	12	4.46
자녀의 성별	남아	153	56.88	맞벌이여부	맞벌이	80	29.74
	여아	116	43.12		한벌이	189	7.26
응답자 연령	30세이하	49	18.22	학력	고졸이하	54	2.07
	35세이하	134	49.81		전문대졸	52	19.33
	36세이상	86	31.97		대졸	130	48.33
응답자 직업여부	직장인	168	62.45	대학원졸	33	12.27	
	무직	101	37.55	전체	269	100	

낮 시간 동안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있어서는 <표 3>과 같이 어머니가 집에서 보호하는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보호하는 경우가 24%로 많았다.

2. 검사도구

가정에서의 영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정의 안전환경 및 부모의 안전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장영희 외(2003)가 부모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감소방안 연구에서 사용한 안전 체크리스트 중 0세~3세 영아에게 해당되는 문항을 참조하였고, 강성희(2004)가 사용한 부모용 안전지식 측정 설문지 문항에서 영아기에 해당하는 문항을 참조하여 안전체크리스트를 수정·보완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영아안전에 대한 의식과 가정안전환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로 진행하였다.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는 총 15가구를 직접 방문하였는데, 가정을 개방하는 부모가 많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따랐다. 예비조사를 하는 동안 부모들이 영아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어려움과 안전의식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분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며 가정에서의 안전 환경에 대한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1차 예비조사 후 연구도구를 더욱 보완하기 위해 2차 예비조사에서는 영아를 둔 부모의 안전의식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하여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도 추가하였으며 가정안전환경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한국소비자보

호원에서 연구한 가정안전체크리스트 중 영아에 해당되는 문항을 참조하여 연구도구를 수정·보완하였다. 2차 예비조사는 설문지 20부를 만3세 미만의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배부하였다.

2) 본 조사

2차 예비조사 20부를 배부한 결과 설문지 문항이 많아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모가 작성하는 동안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다. 그러나 작성하는데 시간적 부담을 제외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영아를 둔 부모 320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시 본 조사에서는 부모들이 충분한 시간동안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다. 영아와 영아 부모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영아부실에서 많은 교사들이 영아들을 돌보아 주는 시간을 사용하여 설문지 작성을 의뢰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평균 25~35분 정도였으며 작성 중 영아의 상태에 따라 작성시간이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이 끝까지 설문지를 정성껏 작성해 주었으며 그 중 안전지식에 관련된 문항이 어려워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및 해석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전용 프로그램인 SAS 9.1을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특징 및 문항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안전 환경, 안전 실천, 안전 지식, 및 안전 지각의 차이를 알아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영아가 있는 가정의 안전 환경 및 부모의 안전의식을 조사하여 영아 안전의 필요성과 인식을 고무시켜 주어 영아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가정환경과 부모의 안전의식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안전환경에 대한 부모의 의식

<표 4>는 가정안전환경에 대한 개별 체크항목별 응답비율의 결과이다. 가정안전환경 체크 항목 중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것은 ‘난로, 다리미, 포트 등 화상의 원인이 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가 98.51%이었다. ‘테이블에 놓여지는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82.89%, ‘모든 계단과 현관, 베란다에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가 78.81%, ‘술, 세제, 화장품, 약, 휘발유, 페인트 등 유독성 물질은 자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74.72%, ‘영아의 주변에 입안에 들어갈 만한 소품(질식위험 소품)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72.86%, 그리고 ‘영아용 의자는 안전성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가 71.00%의 응답을 보여 70% 이상의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반면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용 매트가 깔려 있다’의 경우 31.97%만이 응답을 했으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에는 안전덮개가 덮여져 있다’가 34.94%, ‘현관문에는 도어체크가 되어있다’가 39.77%, ‘소화기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되어 있다’가 42.37%로 응답을 보여 50% 미만의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표 4> 문항별 안전 환경

안전 환경	그렇다	아니다
	빈도(%)	빈도(%)
난로 등 화상위험 요인에 주의	265(98.51)	4(1.49)
식탁에 식탁보 사용 자제	223(82.89)	46(17.10)
모든 계단과 현관, 베란다에는 난간이 설치	212(78.81)	57(21.19)
유독성 물질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	201(74.72)	68(25.28)
질식위험 물질 따로 보관	196(72.86)	73(27.14)
영아용 의자 안전성인 제품 사용	191(71.00)	78(29.00)
창가나 베란다에 딛고 일어설 물건 제거	181(67.28)	88(32.72)
가는 끈, 봉지 등 따로 보관	173(64.31)	96(35.69)
열(연기) 탐지기	139(51.67)	130(48.33)
가스누설 탐지기	162(60.22)	107(39.78)
현관에 추락사 방지 예방책	138(51.30)	131(48.70)
소화기가 잘 보이는 곳에 비치	114(42.37)	155(57.63)
현관문에 도어체크 설치	107(39.77)	162(60.23)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에는 안전덮개	94(34.94)	175(65.06)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용 매트	86(31.97)	183(68.03)

<표 5>는 가정의 안전 환경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 가정에서의 안전 환경 체크항목을 통해 총점을 매긴 후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라 안전 환경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가정안전환경의 각 항목에서 ‘그렇다’는 1점, ‘아

니다'는 0점을 부여하여 총 15점 만점에 평균 8.88점으로 나타났다.

<표 5>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안전 환경총점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대	30세미만	49	9.16	3.27
	35세미만	134	8.90	2.67
	36세이상	86	8.70	2.65
학력	고졸이하	54	7.87	3.03
	전문대졸	52	8.83	2.32
	대학졸	130	9.23	2.66
	대학원졸	33	9.24	3.12
직업	직장인	168	8.85	2.71
	무직	101	8.93	2.89
주거형태	아파트	162	9.74	2.61
	연립/빌라	53	7.60	2.79
	개인/기타	54	7.56	2.21
가족형태	핵가족	214	9.07	2.80
	대가족	43	8.21	2.47
	기타	12	7.83	2.98
맞벌이여부	맞벌이	80	8.83	2.72
	한벌이	189	8.90	2.81
	전체	269	8.88	2.78

연령에 따른 가정의 안전 환경 총점은 30세 미만(평균 9.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5세 미만(평균 8.90) 그리고 36세 이상(평균 8.70)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의 안전 환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가정의 안전 환경 총점은 대학원 졸업 경우 평균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 졸업 평균 9.23, 전문대졸 평균 8.83, 그리고 고졸이하가 평균 7.87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학력이 높을수록 가정의 안전 환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따른 가정 안전 환경 총점은 무직의 경우가 평균 8.93으로 직장인인 경우의 평균 8.8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에 따른 가정 안전 환경 총점은 아파트의 경우가 평균 9.74를 보여 연립/빌라의 평균 7.60과 개인/기타의 평균 7.5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른 안전 환경 총점은 핵가족인 경우가 평균 9.07로 가장 높았으며 대가족인 경우 평균 8.21, 기타의 경우 평균 7.83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안전 환경 총점은 맞벌이를 안 하는 경우가 평균 8.90으로 맞벌이를 하는 경우의 평균 8.83보다 높은 것으로, 가정에서 어머니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안전 환경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부모의 가정안전실천 현황

<표 6>은 영아의 안전에 대한 실천 정도를 각 항목별로 나타낸 결과이다. ‘영아를 혼자 두고 외출하지 않는다’가 91.44%로 가장 실천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아 용품을 구입할 때 안전을 세심히 확인하고 구입한다’가 89.21%, ‘장난감의 안전에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가 88.84%, ‘영아를 안고 있을 때 뜨거운 것을 마시지 있지 않는다’가 82.52%, 그리고 ‘영아를 차에 태울 때 반드시 뒷좌석에 앉힌다’가 81.71%로 나타나 이들 항목에 있어 실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눈, 비, 야간에 밝은 옷을 입히거나 야광밴드를 옷에 붙여준다’의 경우는 26.39%,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32.34%, ‘차에 타면 가족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한다’는 40.89%, 그리고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는 43.49%가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해 응답률이 50%미만을 보여 실천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영아 안전에 대한 실천정도

안전실천	그렇다 빈도(%)	아니다 빈도(%)
영아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지 않음	246(91.44)	23(8.55)
영아용품을 구입할 때 안전을 세심히 확인 후 구입	240(89.21)	29(10.78)
장난감의 안전에 항상 주의를 기울임	239(88.84)	30(11.15)
영아를 안고 있을 때, 뜨거운 것을 마시고 있지 않음	222(82.52)	47(17.47)
반드시 승용차 뒷좌석 태움	219(81.71)	49(18.28)
영아에게 잠시 떨어질 때 아기침대의 난간을 올림	208(77.32)	61(22.67)
영아가 물속에 있을 때는 항상 같이 있음	206(76.57)	63(23.42)
닿아 해진 전기코드와 기구는 즉시 교체	200(74.34)	69(25.65)
냄비나 프라이팬의 손잡이를 안쪽으로 놓음	193(71.74)	76(28.65)
욕실에서는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음	169(62.82)	100(37.17)
차 안에 영아용 카시트를 부착	161(59.85)	108(40.14)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음	117(43.49)	152(56.50)
가족 모두 안전벨트 착용	110(40.89)	159(59.10)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가전제품을 연결안함	87(32.34)	182(67.65)
눈, 비, 야간에 밝은 옷 혹은 야광밴드 붙임	71(26.39)	198(73.60)

부모들이 영아안전을 위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각 항목에서 ‘그렇다’는 1점, ‘아니다’는 0점을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표 7>과 같이 부모들의 영아 안전에 대한 실천 정도는 총점 15점 만점에 평균 12.30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실천 정도의 차이를 보면 36세 이상이 평균 12.36으로 가장 높았으며 30세 미만이 평균 12.27이고 35세 미만이 평균 12.28로 가장 낮은 실천 정도를 보였다.

학력에 따른 실천 정도를 보면 대학원 졸업 경우와 전문대졸의 경우가 평균 12.52로 가장 높았으며 대학졸의 경우 평균 12.28, 고졸이하의 경우는 평균 12.02로 가장 낮은 실천 정도를 보였다.

직업 유무에 따른 실천 정도를 보면 무직의 경우가 평균 12.38로 직장을 가진 경우의 평균 12.26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형태별로 보면 아파트가 평균 12.4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연립/빌라의 경우가 평균 12.11, 개인/기타의 경우는 평균 12.04로 가장 낮았다.

가족 형태의 경우를 보면 대가족의 경우가 평균 12.77로 가장 높았고 기타(편부모 포함)의 경우가 평균 12.25였으며 핵가족의 경우는 평균 12.21로 가장 낮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인 경우가 평균 12.66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평균 12.1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구 통계학적 변인별 영아 안전에 대한 실천정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대	30세미만	49	12.27	3.32
	35세미만	134	12.28	2.85
	36세이상	86	12.36	3.26
학력	고졸이하	54	12.02	3.33
	전문대졸	52	12.52	2.57
	대학졸	130	12.28	3.15
	대학원졸	33	12.52	3.05
직업	직장인	168	12.26	3.01
	무직	101	12.38	3.16
주거형태	아파트	162	12.45	3.13
	연립/빌라	53	12.11	2.79
	개인/기타	54	12.04	3.12
가족형태	핵가족	214	12.21	3.05
	대가족	43	12.77	3.07
	기타	12	12.25	3.41
맞벌이여부	맞벌이	80	12.66	3.13
	한벌이	189	12.15	3.03
전체	269	12.30	3.06	

3. 부모의 가정안전지식 현황

부모들의 영아 안전에 대한 지식을 살펴보기 위해 안전지식 영역을 교통, 화재, 익수(사), 추락, 중독, 질식으로 구분하고 사지선다형으로 문항별 정답을 1점, 오답을 0점 처리하여 부모의 안전지식의 점수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9점까지(마지막 문항 30번은 점수 처리 하지 않음)산출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지식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8>은 주제별 부모의 자녀안전에 대한 지식을 살펴본 결과이다.

<표 8> 주제별 안전지식 총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문항 수
교통	1.40	.64	2
중독	3.49	1.02	5
화재	5.49	1.86	10
추락	1.10	.59	2
익수	1.03	.44	2
질식	2.76	1.05	6
기타	.13	.34	2
전체	16.56	3.36	29

부모의 안전 지식은 29점 만점에 평균 16.56점으로 나타났다. 주제별로 안전 지식이 가장 높은 것은 교통관련 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중독의 경우가

다음으로 높았다. 기타항목이 가장 낮았고 질식 등의 주제에 있어서도 낮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추락, 그리고 익수의 경우는 지식의 절반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교통안전 및 화재 안전 항목에 대한 지식

구분	내용	정답	오답
		빈도(%)	빈도(%)
교통	유아를 차에 태울 때 안전한 방법	228(84.75)	41(15.24)
안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149(55.39)	120(44.60)
	연기 감지기의 설치 장소	210(78.06)	59(21.93)
	전기콘센트로 인한 사고예방법	205(76.20)	64(23.79)
	옷에 불이 붙었을 때의 대처방법	178(66.17)	91(33.82)
	화상 시 대처 방법	170(63.19)	99(36.80)
화재	화재 시 문의 손잡이가 뜨거울 때 대처방법	163(60.59)	106(39.40)
안전	연가 많은 장소에서 숨쉬기 적절한 공간	148(55.01)	121(44.98)
	화상이 가능한 물의 온도	127(47.21)	142(52.78)
	화재 발생시 대처방법	102(37.91)	167(62.08)
	LP 가스 경보기 설치 장소	90(33.45)	179(66.54)
	전기화상을 당하는 원인	85(31.59)	184(68.40)

<표 9>는 교통과 화재 안전에 대한 항목별 부모의 지식의 결과이다. 교통안전에 대한 항목 중 ‘영아를 차에 태울 때 가장 안전한 방법’에 대해서는

84.75%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차량 속도’에 대해서는 55.39%만이 올바르게 알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화재 안전에 대해서는 ‘연기 감지기의 설치 장소’(78.06%)와 ‘전기 콘센트로 인한 사고 예방법’(66.17%) 항목에 대해 높은 정답율을 보인 반면 ‘전기화상을 당하는 가장 큰 원인’(31.59%), ‘LP 가스 경보기 설치 장소’(33.45%), 그리고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37.91%)등의 항목은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별 안전 지식 정도의 결과이다. 연령별로 보면 35세 미만이 평균 16.73으로 가장 높았으며 36세 이상은 16.50이고 30세 미만은 16.20으로 가장 낮은 지식 정도를 보였다.

학력으로 보면 대학원 졸업이 평균 17.0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하가 15.43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유무에 있어서는 무직의 경우가 평균 16.59점으로 직장인의 16.54점 보다 약간 높았다.

주거형태별로 보면 아파트가 평균 16.8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개인/기타의 경우는 16.24점이고 연립/빌라의 경우가 15.89점으로 가장 낮았다.

가족형태로 보면 핵가족이 평균 17.17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가족이 16.63점이고 기타의 경우는 16.07점으로 가장 낮았다.

맞벌이여부에 따라서는 한쪽만 버는 경우가 평균 16.75점으로 맞벌이의 16.13점보다 높았다.

<표 10> 인구 통계학적 변인별 안전 지식 정도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대	30세 미만	49	16.20	4.44
	35세 미만	134	16.73	2.98
	36세 이상	86	16.50	3.23
학력	고졸 이하	54	15.43	3.25
	전문대 졸	52	16.68	3.59
	대학 졸	130	17.01	3.13
	대학원 졸	33	17.13	3.75
직업	직장인	168	16.54	3.18
	무직	101	16.59	3.66
주거형태	아파트	162	16.89	3.33
	연립/빌라	53	15.89	3.21
	개인/기타	54	16.24	3.51
가족형태	핵가족	214	17.17	3.19
	대가족	43	16.63	3.66
	기타	12	16.07	4.02
맞벌이유무	맞벌이	80	16.13	3.63
	한벌이	189	16.75	3.23

<표 11>은 익사 안전, 추락안전, 독극물 안전 항목에 대한 부모의 지식 정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익사 안전의 경우 ‘안전한 물의 높이’에 대해서는 88.47%가 알고 있어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영 전 반드시 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는 14.86%만 올바른 응답을 해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 안전항목에 대해서 ‘추락사고 최우선 예방방법’의 경우는 81.78%가 올바른 응답을 했으나 ‘난간살의 간격’은 27.88%만이 올바른 응답을 하

였다. 독극물 안전에 관한 항목에 있어서는 ‘세제 등 독극물 중독을 예방하는 바람직한 예방 방법’항목(83.78%)과 ‘영아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극물의 종류’의 항목(81.79%)에 대해서는 높은 지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제 등 독극물을 삼켰을 시 처치방법’(46.84%), ‘유통 기간이 지난 약품 처리방법’(63.19%), 그리고 ‘납중독의 주된 원인’(6.31%)등의 항목은 낮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익사안전, 추락안전, 독극물 안전 항목에 대한 지식

구분	내용	정답	오답
		빈도(%)	빈도(%)
익사	안전한 물의 높이	238(88.47)	31(11.52)
안전	수영 전 반드시 해야 할 행동	40(14.86)	229(85.13)
추락	추락사고 최우선 예방방법	220(81.78)	49(18.21)
안전	난간살의 간격	75(27.88)	194(72.11)
독극물 안전	세제 등 독극물 중독 바람직한 예방방법	251(93.30)	18(6.691)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독극물의 종류	220(81.78)	49(18.22)
	납중독의 주된 원인	173(64.31)	96(35.68)
	유통기한 지난 약품 처리 방법	170(63.19)	99(36.80)
	독극물을 삼켰을 시 처치 방법	126(46.84)	143(53.15)

<표 12>는 질식 안전 및 기타 항목에 대한 부모의 지식 정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표 12> 질식 안전 및 기타 항목에 대한 부모의 지식

구분	내용	정답	오답
		빈도(%)	빈도(%)
	질식 시 대처방법	235(87.36)	34(12.63)
	안전사고 유발할 수 있는 옷차림	207(76.95)	62(23.04)
질식	질식유발물건	168(62.45)	101(37.54)
안전	질식이 가능한 물체 크기	79(29.36)	190(70.63)
	작은 식품이 가능한 시기	74(27.50)	195(72.49)
	심각한 쇼킹사건 유발 장난감	54(20.07)	215(79.92)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인식	234(86.98)	35(13.01)
	놀이감 소독 재료	36(13.38)	233(86.61)

질식 안전에 대한 항목별로 보면 ‘질식 시 대처 방법’에 대해 235명(87.36%)이 올바른 정답을 보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옷차림’(76.95%), ‘질식유발 물건’(62.45%)등에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 ‘심각한 쇼킹사건을 일으키는 장난감’(20.07%), ‘땅콩, 포도, 사탕과 같이 작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시기’(27.50%), ‘질식이 가능한 물체의 크기’(29.36%) 등의 항목에 있어서는 지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지식’의 경우는 234명(86.98%)이 올바른 응답을 한 반면 ‘놀이감 소독 재료’의 경우는 36명(13.38%)만이 올바른 응답을 해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영아 안전에 관한 지식 정도

구분	응답빈도	%
매우 잘 안다	6	2.23
약간 안다	62	23.05
보통이다	128	47.58
약간 부족하다	50	18.59
매우 부족하다	23	8.55

<표 13>은 부모 스스로가 느끼는 영아 안전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응답한 결과이다. ‘매우 잘안다’ 라고 응답한 한 경우는 6명(2.23%)로 상당히 낮았고 ‘약간 안다’는 62명(23.05%)이었다. ‘보통이다’로 응답한 경우가 128명(47.58%)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부족하다’의 응답 경우가 50명(18.59%), ‘매우 부족한 경우’가 23명(8.55%)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을 대상으로 영아기 자녀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정확한 지식 전달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4. 부모의 위험지각 현황

<표 14>는 부모가 자녀의 안전사고 위험성에 얼마만큼 의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자녀의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의식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항상 의식한다는 경우가 179명(66.54%)로 가장 많았으며 조금 의식한다는 경우가 66명(24.54%)이었으며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13명(4.83%), 매우 심각할 정도로 의식한다는 경우가 11명(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영아 안전에 대한 의식 정도

구분	응답빈도	%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13	4.83
조금 의식한다	66	24.54
항상 의식한다	179	66.54
매우 심각할 정도로 의식한다	11	4.09

부모들이 인식하는 영아기 자녀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 살펴 보기 위해 거의 없다 0점, 다소 없다 1점, 보통이다 2점, 다소 많다는 3점, 아주 많다는 4점을 부여하여 평균을 살펴본 결과 부모들은 자녀가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원인 1순위로 화상(M=2.88)을 꼽았으며, 추락(M=2.79), 화재(M=2.70) 순으로 상해 가능성의 정도가 높은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교살의 경우는 평균 2.04로 상해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원인으로 응답하였고 익사(M=2.18), 중독(M=2.20), 쇼크(M=2.31) 등도 상해의 가능성이 낮은 원인으로 응답하였다.

<표 15>는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원인별 영아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15> 원인별 영아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정도

순위	구분	평균(M)	표준편차
1	화상	2.88	1.13
2	추락	2.79	1.26
3	화재	2.70	1.22
4	전기쇼크	2.44	1.15
5	간힘	2.42	1.13
6	쇼크(충격)	2.31	1.13
7	중독	2.20	1.13
8	익사	2.18	1.19
9	교살(목조임)	2.04	1.16
전체		2.47	1.13

영아에게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대상 중 가장 높은 것은 문과 창문(M=3.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계단(M=3.24), 뜨거운 물과 액체(M=3.19), 그리고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M=3.14) 순으로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대상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반면 식물과 나무(M=2.32)는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대상에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고 옷과 신발류(M=2.34), 개 및 애완동물(M=2.58), 세제 및 화학약품(M=2.61), 성냥과 라이터(M=2.61)등의 대상은 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경우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은 부모가 인식하고 있는 대상별 영아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정도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표 16> 대상별 영아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 정도

순위	구분	평균(M)	표준편차
1	문과 창문	3.25	1.09
2	계단	3.24	1.10
3	뜨거운 물과 액체	3.19	1.18
4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건	3.14	1.22
5	놀이시설(미끄럼틀, 시소 등)	3.06	1.12
6	놀이용 탈 것들	3.04	1.11
7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2.98	1.24
8	전기제품 및 전기콘센트	2.97	1.14
9	작은 장난감과 다른 작은 물건	2.95	1.10
10	난로 및 히터	2.83	1.33
11	수영장과 바닷가	2.69	1.28
12	가구	2.68	1.04
13	줄과 끈	2.67	1.17
14	비닐팩(비닐종이)	2.62	1.09
15	성냥과 라이터	2.61	1.25
16	세제 및 화학약품	2.61	1.23
17	개 및 애완동물	2.58	1.25
18	옷과 신발류	2.34	1.01
19	식물과 나무	2.32	1.06
	전체	2.68	1.12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최근 영아에게 일어난 가정 내 안전사고의 사례를 분석하면 <표 17>과 같다.

<표 17> 최근 영아 안전사고 사례분석

구분	사례
방 안	문, 서랍 등에 손이 끼임 (21건)
	작은 물건 삼켜 질식할 뻔했음 (15건)
	침대에서 떨어진 사고 (12건)
	귀에 벌레 들어감/ 벌레 물림 (11건)
	가구모서리에 부딪힘 (9건)
	종이나 천 밟고 뒤로 넘어진 사고 (8건)
	가구에 부딪혀 눈 주위 타박상 입음 (7건)
	뽀족한 빛에 눈 찢림 (7건)
	영아 장난감 흡입하여 질식 할 뻔했던 사고 (7건)
	유리 깨져 밟고 미끄러져 근육이 끊어짐 (6건)
	영아 혼자 성인침대에서 자다가 굴러 떨어져 눈가 찢어짐 (6건)
	선풍기에 손가락 넣어 사고 남 (5건)
	사탕 물고 눕다가 목에 걸림 (5건)
	영아 안다가 바닥에 떨어뜨림/ 엎다가 떨어뜨림 (5건)
	날카로운 물건에 찢리고 베임 (5건)
	코에 테이프 조각 들어감/ 코 안에 작은 구슬 들어감 (4건)
	모기에 물려 눈이 완전히 감겼던 사고 (3건)
	창문으로 날아 들어온 벌에 쏘인 사고 (3건)
	스팀 가습기에 손바닥 데임 (3건)
	화장대에 넘어져 입술 찢어짐 (3건)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놀다가 떨어짐 (2건)
	아이가 방 안에서 문 잠금 (2건)
	2살 위인 형과 놀다가 뼈가 부러질 뻔했던 사고 (1건)
TV케이스 밑바닥 부위에 걸려 엄지손가락 찢어짐 (1건)	
컴퓨터 의자에 앉으려다 넘어짐(일어서기 연습하면서) (1건)	
옷 벗기다 팔꿈치 빠짐 (1건)	
아빠가 배 위에서 영아 데리고 놀다 옆으로 누이면서 팔 빠짐 (1건)	
돼지 코(전기차단기)에 찢림 (1건)	
거실	미끄러지거나 물체가 걸려 넘어져 타박상 입음 (19건)
	현관문에 손 끼임 (10건)
	소파에서 굴러 떨어짐/ 소파에서 뛰다가 발목 부상 (8건)

거실에서 작은 장난감 밟고 미끄러진 사고 (8건)
문틈에 새끼손가락 끼어 손톱 빠짐/ 문에 손 끼어 뼈 부러짐 (6건)
형제들끼리 놀면서 장난감으로 인한 찰과상 (6건)
전기 모기향, 매트 판에 손가락 데여 화상 (5건)
친구에게 물림 (5건)
벽, 바닥에 부딪힌 사고 (5건)
칼에 베임 (4건)
집에서 기르는 식물의 나뭇가지에 눈이 심하게 찢림 (4건)
유리가 깨져서 발에 상처 입음 (4건)
상 모서리에 부딪혀 귀 뒤가 찢어짐 (4건)
다리미에 데인 사고 (3건)
전기콘센트에 젓가락 집어넣어 감전될 뻔한 사고 (3건)
정수기 물로 화상 입음 (3건)
종이 책에 손 베임 (3건)
베란다 바닥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 (3건)
귀에 비비탄 알을 집어넣어 응급실 감/ 코에 비비탄 넣음 (3건)
집안에서 키우는 애완견 털로 인한 피부 발진/ 동물로 인한 피부염 (2건)
앞으로 넘어져 앞니 두 개 파열 (2건)
바닥에 떨어진 작은 비닐 입에 넣어 질식 할 뻔한 사고 (2건)
타고 노는 장난감에 손가락 끼인 사고/ 자동차(놀이용)에서 떨어짐 (2건)
모기약 훈증기에 손가락 데임 (2건)
뛰어오다 넘어져 잇몸 다친 사고 (2건)
2살 위 오빠가 책읽어준다며 동생에게 책 흔들다가 눈 찢려 크게 다침 (1건)
에어컨 잡고 흔들다 에어컨 위에 놓여진 화병이 떨어져 이마 찢김 (1건)
안약인 줄 알고 눈에 넣어주었는데 엉뚱한 약풀이어서 응급실에 감 (1건)
양쪽에서 부모가 손잡고 아이가 점프하다 팔꿈치 안쪽 관절 빠짐 (1건)
제과점에 빵 끈(철사끈) 먹은 사고 (1건)
캔 따고 입구에 손가락 베였음 (1건)
친구랑 팔 잡아당기고 놀다 팔 빠짐 (1건)
장난감을 발에 떨어뜨려 다침 (1건)
러닝머신으로 장난치다 손에 화상 입음 (1건)
책 들고 걷다 넘어져 이 부러지고 입술 터짐 (1건)
언니가 사용하는 문구용 칼에 손 베임 (1건)
베란다에서 추락 (1건)

	<p>난로에 데임 (1건)</p> <p>과일 먹다가 목에 걸려 질식할 뻔한 사고 (1건)</p> <p>거실장 손잡이에 찍히는 사고 (1건)</p> <p>할머니 갑상선 기능저하증 약을 10알 이상 먹고 입원(사망할 뻔함) (1건)</p>
부엌	<p>뜨거운 물에 데여 화상 입음 (9건)</p> <p>귀에 음식물 넣은 사고 (3건)</p> <p>압력 밥솥 김으로 인한 화상 (3건)</p> <p>뜨거운 커피 쏟아서 작은 화상 입음 (2건)</p> <p>고기 불판 주위를 뛰어다니다 넘어져 화상입음 (1건)</p> <p>빙글빙글 돌다가 썩크대 모서리에 이마 찰림 (1건)</p> <p>썩크대 안에 칼 들고 있다가 조금 스침 (1건)</p>
욕실	<p>욕실 바닥 미끄럼 사고 (23건)</p> <p>목욕 시 뜨거운 수도꼭지로 인해 화상 입음 (19건)</p> <p>욕조에서 목욕 시키다 뒤로 넘어짐 (9건)</p> <p>뜨거운 물 쪽으로 수도꼭지 틀어 놀란 일 (9건)</p> <p>목욕탕 세면대에 앉아 있다 미끄러짐 (3건)</p> <p>선반 위에 면도날 집어 들었다가 얼굴 베임 (1건)</p>
계단	<p>집 계단에서 구를 뺐거나 굴러 떨어져 사고 남 (17건)</p> <p>계단에서 떨어져 이마 찢어짐 (12건)</p> <p>올라가는 것을 좋아하여 계단에서 뛰다가 떨어짐 (8건)</p> <p>계단 내려오다 발이 빠끗해서 인대 늘어남 (2건)</p> <p>유모차에 아이 태운 후 안심하고 있는 사이 아이가 몸을 움직여 빠져나와 바깥으로 떨어짐 (1건)</p> <p>아파트 계단 난간에 앉아있는데 친구가 장난으로 밀어서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이마에 찰과상 입음 (1건)</p> <p>난간 사이를 빠져나와 아래층으로 떨어져 크게 다침 (1건)</p> <p>아파트 계단에서 굴러 어깨뼈 골절됨 (1건)</p>

최근 가정 내에 일어난 영아 안전사고에 대해 위해장소별 사례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방 안에서 일어난 사고 155건, 거실에서 일어난 사고 134건, 부엌에서 일어난 사고 20건, 욕실에서 일어난 사고 64건, 계단에서 일어난

사고 43건이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작고 미비한 사고부터 생명을 위협을 주는 사고까지 많은 종류의 사례들을 볼 수 있었다. 가정에서 발생한 영아 안전사고 중, 방 안에서 일어난 사고가 155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는데 그 사고유형을 보면 장난감을 삼켜 질식할 뻔했던 사고(22건), 침대나 의자에서 떨어져 다친 사고(12건), 가구의 모서리에 부딪히거나(9건), 문이나 서랍 등에 손이 끼이는 사고(21건)가 많았다.

가정 내에서 장난감이나 작은 물건을 코, 입, 귀속에 넣거나 비비탄 총알을 귀나 코에 넣어 손상을 입는 위해도 많았다. 이는 영아를 대상으로 만드는 완구나 장난감이 아직도 안전기준에 미흡한 제품이 많아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늘 도사리고 있음을 말한다. 문과 서랍 등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21건으로 매우 많이 일어났다.

가정 내 영아 안전사고의 유형별 사고 중 거실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체사고 416건 중에 134건으로 방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주요 사고원인은 거실에 있는 장난감이나 물체를 밟고 미끄러지거나 걸려 넘어지는 사고(27건), 현관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10건), 소파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8건), 집에서 기르는 식물의 나뭇가지에 찢리는 사고(4건)등으로 나타났다.

욕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총416건 중에 67건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욕실바닥 미끄럼 사고가 전체 위해사고 416건 중 23건을 차지하여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커 대신 타월이나 미끄럼 방지용 매트 등을 바닥에 깔아두거나 물기를 자주 제거해주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욕 시 뜨거운 물로 인한 화상(19건)으로도 사고를 많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 전에 반드시 수온을 체크하여 욕조에 들어가고 화상 방지용 수도꼭지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다.

그다음으로 자주 일어나는 사고로 계단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 416건 중에 43건으로 나타났다. 계단에서 구를 뺐 했거나 굴러 떨어져 얼굴이나 몸이 다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가정내 영아 안전사고의 유형 중 마지막으로 발생한 사고로 부엌에서 일어난 사고를 살펴보면 전체의 20건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사고원인으로는 뜨거운 물이나 조리기기에 의한 화상사고로 나타났다.

5. 안전 환경, 안전 실천, 안전 지식, 위험지각과의 상관관계

<표 18>은 안전 환경, 안전 실천, 안전 지식, 위험지각 간의 상관관계의 결과이다.

안전 환경과 안전 실천의 상관관계는 .362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 < .001$)를 보였다. 따라서 안전 환경이 높은 경우 안전 실천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환경과 안전 지식의 경우 상관관계가 .175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 < .01$)를 보였다. 따라서 안전 환경이 잘 갖추어진 부모의 경우 안전 지식 또한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실천과 안전 지식간의 상관관계는 .351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p < .001$)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 지식이 높은 경우 안전 실천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환경과 위험지각 간에는 .256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 < .001$)를 보였다. 이는 안전지각에 민감한 부모가 안전

적인 가정환경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전실천과 위험지각 간의 상관관계는 .294로 유의미한 결과($p < .001$)를 보였는데 이는 위험지각이 높을수록 실천의식도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지식과 위험지각 간의 경우 .421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p < .001$)를 보였다. 이는 부모가 안전지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위험지각에도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안전 환경, 안전 실천, 안전 지식, 위험지각 과의 상관관계

	안전환경	안전실천	안전지식	위험지각
안전환경				
안전실천	.362***			
안전지식	.175**	.351***		
위험지각	.256***	.294***	.421***	

** $p < .01$ *** $p < .001$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정 내에 일어나고 있는 영아의 안전사고 발생실태 및 부모의 안전의식을 조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정안전환경 및 부모의 안전의식을 조사하기 위해 출생~3세 영아를 둔 부모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한 269부의 자료를 통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영아기 자녀를 위한 가정안전환경은 어떠한가?

가정안전환경을 살펴보면 30세 미만의 연령대가 61%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력은 대학원을 졸업한 부모가 안전환경이 높게 나와 학력이 높을수록 안전환경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주거형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으며 주로 핵가족의 형태를 나타냈는데 이는 현시점의 대표적인 가정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한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30%에 해당하는 것은 영아 자녀를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게 됨으로서 맞벌이를 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가정안전환경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 내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난간설치 및 가스누설 탐지기 설치, 창가나 베란다에 던고 일어설 물건 제거하기 등으로 나타났으나 현관문에 도어체크 설치하기, 소화기 비치하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에 안전덮개 덮기, 욕실 미끄럼 방지용 매트 사용

하기 등의 항목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욕실 안에 미끄럼 방지용 매트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68%가 나왔는데 이는 영아기의 자녀가 있는 가정 내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신체적 균형 감각이 떨어져 움직이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넘어져서 사소한 실수라도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물기가 있는 욕실 바닥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가정내 안전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욕실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욕실바닥 미끄럼 사고가 욕실 내 사고의 67건 중 23건을 차지하여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실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스티커를 붙여도 오래가지 못하거나 떨어진 것을 방치해두어 일어난 사고도 많다고 답하였다. 스티커 대신 타월이나 미끄럼 방지용 매트 등을 바닥에 깔아두거나 물기를 자주 제거해 주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0~2002년의 3년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위해정보 중, 1~5세 연령의 영유아가 추락 및 미끄러짐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2003).

다음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콘센트에 안전덮개를 덮어두지 않는 것으로 68%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것은 기거나 걷는 영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매우 위험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5세 이하의 영유아 84명이 감전으로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보고하였다(세계일보,2005.07.10.기사자료).

유아 있으면 콘센트 구멍 막아줘야 (세계일보 2005-07-10)

어린이들은 전기의 위험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감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전기용품 가지고 장난을 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2003년 한 해 5세 이하의 유아 84명이 감전으로 사망하거나 다쳤다. 이는 전체 감전사고의 11%에 달하는 수치다.

· 콘센트를 막아두자=집에 5세 이하의 유아가 있다면 당장 사용 중인 콘센트 외에는 구멍을 막아줘야 한다. 유아가 호기심으로 젓가락을 콘센트에 넣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슈퍼마켓이나 할인점에서는 콘센트에 끼우는 동그란 모양의 플라스틱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렇듯 가정 내에 영유아가 있을 경우, 불안정한 가정환경의 요소가 있다면 부모가 가정 내의 환경을 안전하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려는 부모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이것은 부모의 부주의로 인해 영아 안전사고가 빈발하게 나타나므로 부모의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안전실천은 어떠한가?

가정안전실천의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일반적 배경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들의 영아 안전 실천 정도를 알아본 결과, 안전실천이 가장 높은 것이 영아를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하지 않는 것(9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일어난 사건 중, 생후 4개월 된 딸을 재워놓고 부모가 PC방에 간 사이 아기가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는 머리를 제대로 가누지 못해 엎드려 자다가 질식사하는 ‘돌발사망 증후군’의 위험이 높지만 아기의 부모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였다(문화일보,2005.06.23.기사자료).

다음으로 안전실태가 높은 항목으로는 영아용품 구입 시에 안전을 세심하게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89%)과 장난감의 안전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89%)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최근 완구 도매상가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3세 미만을 대상으로 만든 완구 26종을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완구의 38.5%에서 DEHP나 DINP가 검출됐다”면서 “치아 발육기 같은 유아 구강용 완구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DEHP와 DINP가 검출됐다”고 말하였다(조선일보,2005.06.17.기사자료).

유아용 장난감 40%서 유해물질 검출 (조선일보, 2005-06-17.)

한국소비자 보호원은 16일 시중에서 팔리는 유아용 장난감 10개 중 4개에서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꼽히는 DEHP나 프탈레이트 계 가소제(DINP)가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DEHP나 DINP는 딱한 PVC재질에 탄성을 주기 위해 첨가되는 프탈레이트 계 가소제의 일종이라고 소비원은 설명했다. 소비원은 “최근 완구 도매상가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3세 미만 유아대상 완구 26종을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완구의 38.5%에서 DEHP와 DINP가 검출됐다”면서 “치아발육기 같은 유아 구강용 완구 6개 제품 중 한 개 제품에서 DEHP와 DINP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소비원은 “현행 완구 안전검사기준에 따르면 치아발육기 같은 유아 구강용 완구에는 DINP나 DEHP와 같은 프탈레이트 계 가소제의 사용이 금지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강용 완구와 일반 완구류를 구분하는 현행기준이 모호한 만큼 분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안전검사 범위를 모든 PVC재질의 유아용 완구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소비원은 말했다.

영아 용품의 안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확인한 후에 구입한다는 부모의 안전실천은 높게 나왔으나, 영아용품을 일반 완구류와 구분하는 현행 기준이 모호한 이유로 무분별하게 만들어지는 영아용품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영아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검사가 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털 장난감의 안전기준도 없어 영아에게 안전하지 못하다는 최근 기사자료가 나왔다. 인형가게에서 “이 인형은 아기가 빨아도 상관없다”는 말만 믿고 구입했으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어떤 표시도 찾을 수 없었다. 아기들이 갖고 노는 털 장난감, 아기들 옷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시민모임은 최근 판매중인 봉제 완구류 10종을 검사한 결과 최상위 5급에 해당되는 제품이 하나도 없었고 4급에도 못 미치는 제품이 3개, 4급에 해당되는 제품이 6개였다“고 밝혔다. 검사대상 제품 10개는 모두 0~3세를 위한 상품이었다. 이 시기의 영아들은 어른이 안보는 사이 장난감을 빨기도 해서 털 장난감 및 털 의류에 대한 검사기준 등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내일신문,2005.05.02.기사자료). 또 다른 보도 자료

에서는 6살 이하 영유아가 삼킨 물건을 보면 구슬과 비비탄 총알, 인형 등 장난감이 27%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처럼 장난감으로 인한 사고는 최근 해마다 10%이상씩 늘고 있으며 사고의 78%가 보호자가 있을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호자가 있더라도 방심하거나 주의가 소홀하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YTN TV,2005.10.06.보도자료).

장난감·건전지 못 철사까지 삼키는 사고(YTN보도. 2005-10-06)

어린 아이들이 입에 대서는 안 될 물건을 삼키는 사고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장난감이나 건전지 같은 화학제품은 물론 못이나 철사도 삼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6살 이하 영아나 유아가 삼킨 물건을 보면 구슬과 비비탄 총알, 인형 등 장난감이 27%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에는 단추모양의 수은 건전지 등 화학, 의약품이 25%, 바둑알과 면봉 같은 생활용품이 15%였습니다. 특히 수은 건전지를 삼키게 되면 식도가 부식되는 등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소비자보호원은 경고했습니다. 또 철사와 병뚜껑, 머리핀 같은 쇠로 된 물건을 삼키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잘못 삼키는 영유아 사고는 최근 3~4년 동안 해마다 10%이상씩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153건, 2003년에 165건, 지난해에는 228건이 발생했고 올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183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발생건수는 같은 기간 있었던 전체 영유아 안전사고의 10.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소보원은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경우가 늘면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

소보원에 따르면 최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제품 자체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모든 제품으로부터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없는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주의·경고표시 및 사용방법에 대한 지시라 할 수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2003).

안전실천을 잘 하지 못하는 항목으로 눈, 비, 야간에 밝은 옷이나 야광밴드를 붙이지 않는 것(74%)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대상이 ‘영아’여서 부모가 늘 곁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고 날씨와 관련된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음으로 안전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가전제품을 연결하

여 사용하는 것(68%)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 불감증은 자칫 감전사고로 연결되어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낡았거나 손상된 코드는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만 차단하지 말고 플러그를 뽑는다. 젖은 손으로 전기제품이나 스위치를 만지지 않도록 하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감전사고 예방의 기본 장치인 누전 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해야한다(강성희,2004).

3)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안전지식은 어떠한가?

안전지식의 결과는 연령대로 살펴보면 35세 미만이 안전지식이 가장 높았고(55점), 대학원 졸업자가 가장 높은 것(56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문항별로 나타난 안전지식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통안전 및 화재안전 지식에 대한 실태를 살펴보면, 영아를 차에 태울 때 안전한 방법에 대한 질문의 정답율이 85%로 교통안전에 대한 지식을 대부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화재에 대한 지식은 매우 미약하였는데 특히 영아가 전기화상을 당하는 원인에 대해 가장 많은 오답(68%)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LP가스·도시가스 경보기 설치장소에 대해 모르는 부모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과 안전지식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들은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지식이 높게 나왔지만 큰 사고 시 대처방법이나 예방법에 대한 안전지식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화재안전에 대한 지식 중 가장 높은 정답을 보인 항목이 연기감지기를 부엌에 설치하는 것(78%)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정답을 말한 항목이 영아가 전기화상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문제였는데 이것은 68%의 오답률을 보였다. 이는 영아기 발달특징과 관련된 사고유형에 대한 부모들의 안전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영아기에는 주로 입으로 가져가 물거나 빠는 행동특징이 있어서 전류가 흐르는 콘센트를 물거나 빠는 것으로 전기화상을 당하는 원인이 가장 크다.

익사에 관련된 안전지식의 문제에서 수영 중 반드시 해야 할 행동에 대해 85%가 오답률을 보였다. 추락에 관한 지식 실태로는 ‘추락사고 최우선 예방방법’에 대해 82%가 알고 있었으나 베란다 난간살의 규정된 간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72%가 오답률을 보였다. 이미 가정내에 시설이 설비되고 갖추어진 환경구성에 있어서는 부모들이 안전에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독극물의 종류’에 대해 82%가 ‘약품’으로 인한 위험이라고 지적해주었는데 반해, 실제 약품을 영아의 손 가까이 방치하여 영아가 먹고 삼킴으로 피해를 입는 사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소보원 조사 결과 열 가구 중 일곱 가구는 식탁이나 거실 서랍장, 냉장고에 약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잘못 먹었을 경우 얼마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했다. 유통과정에서는 이미 폐기되었지만 아직도 적지 않은 가정에서 상비약으로 보관되고 있다. 이밖에 사용기한을 넘긴 약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이 처방 받은 약을 사용하는 경우도 열 가구 중 네 곳이나 되었다. 따라서 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약품을 보관하고 용량과 사용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YTN, 2005.05.12.보도자료). ‘영아의 독극물 중독(세제 등)의 바람직한 예방방법’은 무려 93%가 영아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함을 알고 있었으나,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영아의 손에 닿지 않도록 신경 쓰는 부모는 많지 않다. 이렇듯 독극물 중독 사고는 대부분 부모의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데 병뚜껑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70%는 미리 막을 수 있다(YTN,2004.05.04.보도자료).

어린이 독극물 사고, 뚜껑만 관리해도 예방.(2004-05-04)

우리나라 어린이의 안전사고 비율은 10만 명당 27명으로 OECD 가입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특히 독극물 중독 사고는 대부분 부모의 부주의 때문에 생기는데 병뚜껑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70%정도는 미리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 아산병원에서 조사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유아 독극물 중독으로 이 병원을 찾은 경우는 모두 57건. 이 가운데 약물이나 화학제품을 먹은 경우는 무려 34건이나 됩니다. 모두 부모들이 아무렇게나 방치한 경우입니다. 심지어 음료수병에 빙초산이나 세제를 넣어뒀다 아이들이 마신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에서는 대부분의 약품에 안전마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용 안전마개가 있는 약병입니다. 어른들에게는 간단한 장치이지만, 이 뚜껑 하나만으로 어린이 독극물 사고는 67%까지 예방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7월부터 몇 가지 약품에 대해 보호용기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종류가 제한적인데다, 세계와 본드 같은 화학제품의 경우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약품과 화학제품의 포장에 조금만 신경을 쓰는 것만으로도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아세트과 베이비오일의 뚜껑에 안전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가정에서 영아가 독극물 마시는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안전마개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70년부터 각종 용기에 안전마개 사용을 의무화한 법안이 별도로 제정되었고 이러한 중독방지 포장법을 도입한 후 영유아 약물중독 사망자 수가 90%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며 어린이의 85%가 설명 없이 개봉 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 등 명확한 기준을 삽입한 안전마개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신동아,2004.07.09기사자료).

美, 안전마개로 사망률 90%줄어(신동아 기사자료, 2004-07-09)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호용기 사용을 의무화한 화학제품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철분 등을 함유한 의약품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같은 시약청 고시(2003년 7월부터 시행)는 의약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가정용 화학제품까지 안전용기 포장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1972년 중독방지 포장법을 도입한 후 어린이 약물중독 사망자수가 90%이상 줄어드는 효과를 거뒀다며 어린이의 85%가 설명 없이 개봉할 수 없는 용기나 포장 등 명확한 기준을 삽입한 안전 마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호포장용기, 즉 안전마개란 어떤 것일까. 지난 5월 3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어린이독극물 사고 예방 대책’심포지엄에는 안전마개를 사용한 여러 화학제품이 진열됐다. 이들 제품은 대다수 수입제품으로 성인의 경우에도 뚜껑을 여는 방법을 알아차리는데 30초~1분이 걸릴 정도로 특수하게 고안된 것들이다.

질식 및 기타 안전지식의 문항에서 질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은 87%의 정답률을 보였다. 영아들의 질식은 눈 깜짝할 사이 일어나므로 작은 동전이나 단추, 땅콩 등 지름 3.2cm이하의 작은 물건은 모두 질식을 유발하는 위험한 요인이므로 질식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면 많은 오답을 보였던 내용은 영아에게 심각한 쇼킹사건을 유발하는 장난감에 대한 질문과 작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시기에 대한 질문이었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것을 좋아하는 영아기에는 놀잇감이나 고형음식을 입안에 물고 놀다가 갑자기 웃거나 울거나 또는 넘어지면서 입에 넣고 있던 물건이 입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 기도를 폐쇄하게 된다(강성희,2004).

기타 질문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의 인식은 87%가 영아기의 상해나 사고는 예방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아기의 가정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안전지식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진다면 영아의 가정환경이 보다 안전성 있게 구성되어질 것이라 사료된다. 반면 기타 질문에서 87%의 오답을 선택한 문항이 ‘놀잇감 소독의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다. 세제나 단지 삶는 것으로 소독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놀잇감 소독법도 장난감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한다.

영아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지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매우 잘 안다’고 응답한 경우가 6명으로 가장 낮았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128명으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영아 안전에 대한 지식을 부모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교육으로 향상시켜주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4) 영아기 자녀 안전사고에 대한 부모의 위험지각은 어떠한가?

자녀안전 사고 위험성에 대한 지각 정도를 알아보면 ‘항상 의식한다’가 67% 나타났다. 그 상해원인으로 가장 높게 나온 1순위가 ‘화상’으로 나왔으며 다음으로 추락, 화재 등으로 나타났다.

영아가 ‘대상’으로부터 상해 입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문항으로 1순위가 문과 창문, 다음으로 계단, 뜨거운 물과 액체, 날카로운 물건 등이었다. 가장 상해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한 부분이 식물과 나무, 옷과 신발류, 애완전, 세제 및 화학약품, 성냥과 라이터 등으로 나타났다. 상해 입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 ‘원인’과 ‘대상’이 화상으로 인한 사고와 문과 창문에 의한 상해였는데 가정 안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반면 가장 위험한 사고이기도 하다. 문과 창문에 상해를 입는 경우는 주로 협착·끼임 사고로 신체의 일부가 현관문, 대문, 방문, 가구 경첩, 싱크대, 자전거 체인 등에 끼어서 절단 또는 압제손상 등이 일어나는 가정내 안전사고로서 한국 소비자보호원(2001)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741건 중 41건(6%)에 달하는 사고 유형이다. 대개 손가락이 끼는 경우가 가장 많고(92.7%), 목 등이 끼는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7)은 구체적으로 <아파트 및 단독주택 현관문>의 어린이 손가락 끼임사고 위험 실태 조사결과를 통해, 현관문을 자동으로 닫는 도어 클로저가 협착이나 끼임사고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도어 클러저 내부에 충격완화장치를 설치해서 현관문이 갑작스럽게 닫힐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2003)의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어린이가 시설물에 의하여 다치는 사고는 총 933건으로 문틈에 손가락이 끼여 상해를 입는 ‘문(방문, 현관문, 대문)’에 의한 사고가 16.0%(15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발을 헛

디디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계단’에 의한 사고 15.9%(158건)으로 많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중, 가정 내에 영아 안전사고에 대한 위해장소별 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 316건 중에서 방 안에서 일어난 사고(155건)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거실에서 일어난 사고(134건), 부엌에서 일어난 사고(20건), 욕실에서 일어난 사고(64건), 계단에서 일어난 사고(43건)로 나타났다.

‘방 안’에서도 ‘가구’로 인한 영아의 위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른이 사용하는 가구라도 모서리의 마감처리 등 보호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즉 영아용 가구는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것을 선택하고 가구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모서리 부분은 테이프를 붙여두거나 모서리보호대를 구입하여 덧대주어야 한다. 또한 ‘문과 서랍 등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21건으로 매우 많이 일어났는데 끼임 사고의 예방을 위해 틈새에 합성수지나 고무 등을 부착하고 영아와 함께 출입 시에는 문을 닫기 전에 영아의 손가락이 끼어있는지 확인하고 문을 닫는다(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거실’에서 일어난 사고는 전체사고 416건 중에 134건으로 방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거실에 미끄러질 수 있는 장난감이나 물건은 즉시 치우도록 하고 영아가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끄럼 방지용 양말을 신도록 한다. 현관문 끼임 사고의 예방은 현관문 고정지지대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불량 시에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현관문 고정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가구(소파)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아들이 쉽게 추락할 수 있는 침대나 의자, 소파 등 가구 위에는 혼자 두지 않는다. 높은 의자나 유모차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장치(안전띠)를 하도록 한다. 가정에서 기르는 식물은 영아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다. 영아가 식물의 나뭇가지나 잎에 찢려서 위해를 입게 되는 사례도 있지만, 식물의 잎을 뜯어 먹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욕실’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총416건 중에 67건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욕실바닥 미끄럼 사고가 전체 위해사고 416건 중 23건으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커 대신 타월이나 미끄럼 방지용 매트 등을 바닥에 깔아두거나 물기를 자주 제거해주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욕조 내이나 세면대에 절대 혼자 두지 말고 감독해야 한다. 욕실 내의 사고는 생명에도 위협을 줄만큼 위험하기 때문이다.

욕실에 있는 화장품이나 비누, 샴푸 등을 영아가 먹을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고, 욕실 캐비닛 손잡이에 안전 빗장을 걸어두는 것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또한 욕실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구(헤어드라이어 등)는 사용하지 않을 때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두어야 한다. 물에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감전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에는 누전방지 장치를 부착한다.

그다음으로 자주 일어나는 사고로 ‘계단’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전체 416건 중에 43건으로 나타났다. 계단에서 구를 뺐 했거나 굴러 떨어져 얼굴이나 몸이 다치는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영아와 함께 다니는 성인은 계단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충분한 높이의 튼튼한 난간을 양쪽에 설치해야 한다. 난간을 영아가 계단을 붙잡고 오르내릴 때 손잡이 역할을 하며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도 보호대의 역할을 한다. 난간의 높이가 아이들의 중심보다 낮으면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상적인 난간의 높이를 제시한다면 110cm가 되도록 한다. 계단의 난간은 튼튼한지 수시로 점검한다. 난간 막대 사이의 간격을 11cm이상을 초과하지 않게 함으로써 어린아

이의 머리가 난간 막대사이를 빠져 나가지 않게 한다. 머리가 빠져나가면 몸도 자연스럽게 빠져 나갈 수 있다. 계단은 항상 밝게 조명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물체나 물기가 없어야 한다. 또한 계단 옆의 벽에 아이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그림이나 사진을 걸지 않는다. 계단에 그림이나 사진을 놓을 경우 어린아이들의 시선이 그림에 끌리게 되므로 신체의 균형 감각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아가 계단을 올라갈 때 보호자는 반드시 아래쪽에서 걷도록 하여 혹여나 영아가 뒤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정내 영아 안전사고의 유형 중 ‘부엌’에서 일어난 사고를 살펴보면 전체의 20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뜨거운 물이나 조리기기에 의한 화상 사고였다. 화상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조리대, 식탁 위에 뜨거운 것을 올려놓을 때 손잡이 등이 영아 손에 닿지 않도록 놓아둔다. 또한 영아가 일어서기 위해 끌어당길 수 있는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취사 중에는 영아가 부엌에 오지 못하게 하고 전기밥솥의 증기로 인한 화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렇듯 수집된 자료의 결과에 따르면 영아 안전사고가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고는 부모의 주의 깊은 관찰과 점검 속에 예방이 가능한 것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영아기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라면 주의와 감독은 보다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영아의 눈에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탐색해볼 만한 것이기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영아기 때 주위의 실수나 환경에 의해 일어난 사고는 영아에게 있어서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의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늘 안전 환경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다.

5) 부모의 안전환경, 안전실천, 안전지식, 위험지각과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이들의 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지식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향상시켜주고 지식에 기반한 안전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가정안전환경이 효과적으로 구성되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안전교육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본 Tower 등(2001)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체계화되어 다양한 부모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는 바이다.

2. 제언

이러한 연구결과 및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가정 내 영아 안전사고에 관련된 신문을 포함한 보도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지만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의 논문은 매우 부족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따라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영아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후속연구가 끊임없이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처음 시도했던 연구방법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안전 환경에 대해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부모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가정 내 방문을 허락하는 부모가 많지 않아 사실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많다는 단순한 결과보다도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나 개인적인 접촉이 불가능하여 연구의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질적 연구로서 가정 내에 안전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사고의 원인을 가정에서만 국한시켜 영아와 부모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왔던 관점을 국가 사회의 문제임을 알고 가정을 중요하고도 가장 기초적인 장소로 인식하여 가정과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 부모에게 100% 과실을 두어 비난하고 비방하는 데 관심을 돌려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다.

셋째, 국내에서 가정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는 매우 드물다(강성희,2004,장영희 외,2003). 가정 내에 일어나고 있는 안전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예방적 차원의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연구가 매우 미흡하므로 부모 안전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후속연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모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조력해주어야 한다.

넷째, 현재 부모대상 안전교육 사업이 거의 미비한 형편이며, 부모들의 자녀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업이 부족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영아 안전사업과 대중홍보 전략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영유아 안전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아동안전과 관련

된 법규를 제정하여 부모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영유아를 맡고 있는 교육기관에서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에 관한 연구와 교재 교구를 개발·제작하고, 가정에 안전교육 자료와 정보지를 배포하고 보급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안전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지만, 부모들에게 유인물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정보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교육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산, 병원과 보건소를 활용한 프로그램, 문화회관을 활용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안전교육이 활성화 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며 이에 따른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희(2004). 가정내 영유아 안전사고 분석을 통한 부모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영은(2002). 어린이 교통안전 학습을 위한 웹 코스웨어 설계 및 구현.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은복(2000). 유아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권이혁(1982). 최신보건학. 서울: 신광 출판사.
- 장영희, 윤선화, 정윤경, 이해경, 윤서연(2003). 부모 안전의식 강화를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
- 김경희(2003). 영유아 보육시설의 안전교육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 4개 구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대원(1996). 영아 보육시설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종사자의 요구분석 질적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경(2003).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 실태 및 교사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경기도 국공립 유치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영(2003). 유아교육기관의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혜경(2002). 보육시설의 영유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과 프로그램 개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희숙(2003). 유아교육기관의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육교사 지침서/경기도(2000).
- 서울시 소방방재본부(2003). 2002년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자료.
- 이기숙, 장영희, 정미라, 배소연, 박희숙(1997). 영유아를 위한 안전교육과 응급처치. 서울: 양서원.
- 이은선(2002). 유아교육기관의 안전환경에 관한 실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섭, 홍순정(1998). 유아교육개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 이영희(2004). 유아교사의 안전교육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2001). 아동사망사고실태를 통해서 본 아동안전정책 방향. 어린이 안전보호 확산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한국안전생활교육회.
- 윤지영(2004). 유아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숙(1999).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안전사고에 관한 유아교사의 인식.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나미(2000). 유아교육기관 안전사고 분석 및 대책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소비자보호원(1996).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실태 및 대책.
- _____ (1997). <아파트 및 단독주택 현관문>의 어린이 손가락 끼임 사고 위험 실태 조사 결과.
- _____ (1999). 영유아의 가정내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 _____ (2001).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_____ (2003a). 가정내 어린이 중독사고 실태조사.

_____ (2003b). 가정내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및 개선방안 보고서.

홍혜선(2002). 영아발달에 따른 교사의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내일신문(2005.05.02). 털 장난감 안전기준도 없어.

동아일보(2005.06.15). 4개월딸 잠든 새 PC방서 게임, 5시간 뒤 와보니 질식해 숨져.

문화일보(2005.06.23). '준비 안 된 부모들' 아기 잡는다.

세계일보(2005.07.10). 유아 있으면 콘센트 구멍 막아둬야 한다.

신동아(2004.07.09). 美, 안전마개로 사망률 90% 줄어.

전국핫뉴스(2005.08.04). 영유아 안전사고 주의 -어른침대에서 영유아 안전사고 많아 특별 주의.

조선일보(2005.06.17). 유아용 장난감 40%서 유해물질 검출.

SAFE Kids Korea(2000). 영/유아 질식사고, 80%는 부모가 옆에 있을 때 발생. <http://www.safekids.or.kr>에서 2005, 10, 09 인출.

SAFE Kids Korea(2002). 가정내 안전사고 예방 체크리스트. <http://www.safekids.or.kr>에서 2005, 10, 19 인출.

SAFE Kids(2005). 영아 화상 예방. <http://www.safekids.org>에서 2005, 10, 17 인출.

YTN(2004). 어린이 독극물사고. <http://news.naver.com/news>에서 2005, 09, 04 인출.

YTN(2005). 잘못된 약품 보관, 사고위험 키운다. <http://news.naver.com/news>에서 2005, 09, 05 인출.

YTN(2005). 아세톤, 베이비오일 안전마개 의무.

<http://news.naver.com/news>에서 2005, 09, 05 인출.

YTN(2005.10.06). 장난감 · 건전지 못 철사까지 삼키는 사고.

<http://news.naver.com/news>에서 2005, 09, 08 인출.

한국소비자보호원(2003).<http://www.cpb.or.kr> 소비자정보뉴스레터(제167호)에서 2005, 09, 14 인출.

소방방재본부(2003). 2003년 어린이 안전사고 분석자료.

<http://www.nema.go.kr>에서 2005, 10, 03 인출.

소비자 안전넷(2005). 영유아 삼킴 안전사고 위해사례

<http://www.isafe.go.kr/nstudy>에서 2005, 10, 13 인출.

Chalmer, D. J., & Langley, J. D.(1999). New Zealand's injury prevention research unit: Helping shape *injury prevention* policy and practice. *Injury Prevention*, 5, 72-75.

Ellsaber, G., & Berfenstam, R.(2000).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child injuries and prevention program: Recommendations for an improved prevention program in Germany. *Injury Prevention*, 6, 41-45.

Erdmann, T. C., Feldman, K. W., & Rirara, F. P.(1991). Tap Water burn prevention: the effect of legislation. *Pediatrics*, 88, 572-577.

Frederick, K., Bixby, E., Orzel, M. N., Stewart-Brown, S., & Willett. K. C.(2000).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 Injury Minimization Programme for Schools(IMPS), *Injury Prevention*, 6, 92-95.

- Morrison, A, Stone, D. H., & the EURORISC working Group(1999). Unintentional childhood injury mortality in Europe 1984-93: A report from the EURORISC working Group. *Injury Prevention*, 5, 171-176.
- National Safe Kids Campaign.(1990). *Childhood injury fact sheet*. Washington, D. C: National Safe Kids Campaign, Children's National Medical Center.
- Spiegel, C. N., & Lindaman, F.C.(1977). Children can't fly: A program to prevent childhood morbidity and mortality from window fall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67, 1143-1147.
- Tower, E., Fowswell. T., & Jarvis, S.(2001). Updating the evidence. A systematic review of what works in preventing childhood unintentional injuries: part 2. *Injury Prevention*, 7, 249-253.
- 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1971). *Health services: A guide for project director and health personnel*. Washington D.C.

ABSTRACT

The Parents Conciousness and Performance about the Infants safety and Home safety circumstance

Kim, Hee-Su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the safety incident of infants is prevented in advance as verifying safety incident occurrence condition of infants and safety consciouness of parents.

The test was carried out by the parents who have 0 ~ 3 years old infants and live in Seoul. The group was let to have 320 pieces of papers, while 269 pieces of papers were collected.

The data of this study was composed of five parts as follows;

First, the most performable point in the house safety

circumstance which has infants between 0 ~ 3 years old is " paying attention to cause a burn" ,while the worst unfulfilled point is " slide accident in the bathroom "

Second, the most practical point in the parents safety practice is

" Not to go under the infant alone " ,while the worst practical point is " Not to put on bright clothing in raining, snowing condition"

Third, the state of safety consciouness is traffic, addiction, fire, fall, drowning, suffocation, etc in good order.

Fourth, it is revealed that the dangerous consciouness which the parents consider at home is always they care about it.

The last, it is showed that all of them above mentioned are related to each other.

As a result, the parents try to learn continuous and systematical education to improve parents safety knowledge and safety practice state for achieving safety home circumstance with infants safety.

<부록> 학부모용 안전의식 측정 설문지

영아기 자녀가 있는
가정안전환경 및 부모의 안전의식에 대한 연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안전환경과 부모의 안전의식의 정도를 조사하여 영아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영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의 안전의식에 주목하고, 가정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영아기 자녀의 부모들에게 직접적인 안전의식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자료로만 이용되며,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9월

지도교수 장 영 희

연구자 김 희 선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전공

▶ 일반현황 ◀

다음 해당사항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기타 (_____)

2. 자녀의 연령과 성별은 어떠합니까? (자녀 모두에 대해 표기해 주십시오)

- ① 첫째 자녀(만 _____세, 남/여) ② 둘째 자녀(만 _____세, 남/여)
③ 셋째 자녀(만 _____세, 남/여) ④ 넷째 자녀(만 _____세, 남/여)

3. 귀하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 ① 20~25세 ② 25~30세 ③ 31세~35세 ④ 36~40세 ⑤ 41세 이상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졸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5.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가정주부 ② 전문직 ③ 사무직 ④ 판매직 ⑤ 서비스직
⑥ 농림수산업 ⑦ 생산직 ⑧ 학생 ⑨ 기술직 ⑩ 단순노무직
⑪ 기타 (_____)

6. 귀하의 주거형태는 어떠합니까?

-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빌라 ③ 개인주택 ④ 기타 (_____)

7. 귀하의 가족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핵가족(부부+ 자녀) ② 대가족(조부모+ 부부+ 자녀) ③ 한부모(부/모+ 자녀)
④ 조부모+ 손자녀 ⑤ 기타 (_____)

8. 부부가 맞벌이를 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9. 낮 시간동안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 ① 어머니가 집에서 보호한다
② 아버지가 집에서 보호한다
③ 부모, 혹은 다른 어른이 집에서 보호한다
④ 보육시설 혹은 유치원에서 보호한다
⑤ 기타 (_____)

▶ 안전실천 ◀

다음은 부모님들의 영아 안전에 대한 실천정도를 알아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실천내용	그렇다	아니다
1	영아를 승용차에 태울 때 반드시 뒷좌석에 앉힌다.		
2	차에 타면 가족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3	눈이나 비가 올 때, 혹은 밤에 나갈 때는 밝은 옷을 입히거나 야광밴드를 옷에 붙여준다.		
4	손잡이가 긴 냄비나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는 자녀가 만질 수 없도록 손잡이를 반드시 안쪽으로 돌려놓는다.		
5	욕실에서는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6	한 개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가전제품을 연결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7	뺏아 해진 전기코드와 기구는 즉시 교체한다.		
8	영아가 물속에 있을 때는 항상 같이 있다.		
9	응급처치 절차와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		
10	영아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지 않는다.		
11	영아에게 잠시 떨어질 때 아기침대의 난간을 항상 올리고 있다.		
12	영아를 안고 있을 때, 뜨거운 것을 마시고 있지 않는다.		
13	차 안에 영아용 카시트를 부착하였다.		
14	영아용품을 구입할 때 안전을 세심히 확인하고 구입한다.		
15	장난감의 안전에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안전지식 및 지각◀

다음은 부모님들의 영아안전에 대한 지식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1. 영아를 차에 태울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안전벨트(카시트)를 하고 앞좌석에 태운다.
- ② 안전벨트(카시트)를 하고 뒷좌석에 태운다.
- ③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좌석에 태운다.
- ④ 잘 모르겠다.

2.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는 몇 km이하의 속도로 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20km
- ② 30km
- ③ 40km
- ④ 잘 모르겠다.

<화재>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불을 끌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옷을 벗는다.
- ② 펄쩍 펄쩍 뛰다.
- ③ 바닥에 엎드려 뒹군다.
- ④ 잘 모르겠다.

4. 연기가 많은 장소에서 숨쉬기에 가장 적절한 공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바닥
- ② 바닥에서 30~60cm 사이
- ③ 바닥에서 1m 높이

- ② 전기콘센트에 젓가락 집어넣기
- ③ 물 묻은 손으로 전기 콘센트 만지기
- ④ 잘 모르겠다

<익수(사)>

13. 수영을 하기 직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준비운동을 한다.
- ② 튜브의 상태를 점검한다.
- ③ 든든하게 식사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14. 영아가 물에 들어가기에 안전한 물의 높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배꼽 ② 가슴 ③ 목 ④ 잘 모르겠다.

<추락>

15. 영아의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베란다나 창문에 영아가 딛고 올라설 만한 가구나 물건을 두지 않는다.
- ② 방충망을 설치한다.
- ③ 추락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영아에게 설명한다.
- ④ 잘 모르겠다.

16.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베란다 난간살의 간격은 몇 cm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cm ② 10cm ③ 15cm ④ 잘 모르겠다.

<중독>

17. 영아가 독극물(락스, 세제류, 아세톤 등)을 삼켰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우유를 마시게 한다.
- ② 구토제를 먹인 후 독극물을 토하게 한다.
- ③ 응급센터나 119로 즉시 전화한다.
- ④ 잘 모르겠다.

18.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더 이상 필요 없는 약품(액체류)을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쓰레기통에 버린다.
- ②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린다.
- ③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므로 벽장 속에 보관한다.
- ④ 잘 모르겠다.

19. 어린영아들이 가정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독극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약품 ② 음식 ③ 식물 ④ 잘 모르겠다.

20. 영아가 납중독을 가장 잘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크레파스 ② 연필 ③ 페인트칠이 벗겨진 놀이시설 ④ 잘 모르겠다.

21. 영아가 세제 등을 마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 ② 병 앞에 라벨을 써두고 영아에게 마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해준다.
- ③ 영아가 집에 있을 때는 항상 감시한다.
- ④ 잘 모르겠다.

<질식>

22. 영아들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곰인형에 달린 눈알
- ② 튜브공
- ③ 50원짜리 동전
- ④ 잘 모르겠다.

23. 자녀가 입안으로 물체나 음식을 집어넣어 숨이 막혀서 기침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아의 고개를 숙인 후 등을 손바닥으로 세게 두드려 준다.
- ② 영아를 잡고서 흔든다.
- ③ 영아에게 계속 기침을 하게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24. 영아의 옷 중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옷차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몸에 딱 맞는 티셔츠
- ② 짝짝이 형의 신발
- ③ 끈이 달린 점퍼
- ④ 잘 모르겠다.

25. 어느정도 크기가 되어야 어린 영아들의 질식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1.2cm ② 2.2cm ③ 3.2cm ④ 잘 모르겠다

26. 영아에게 가장 심각한 쇼킹사건을 일으키는 장난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입으로 부는 풍선 ② 작은 공 ③ 인형 ④ 잘 모르겠다

27. 땅콩, 포도, 사탕과 같이 작은 식품을 먹어도 안전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만1세 이상 ② 만3세 이상 ③ 만5세 이상 ④ 잘 모르겠다

<기타>

28. 가정 내 영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부모의 인식 중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사고는 피할 수 없으며, 인생의 일부분이다.
- ② 영아기의 상해나 사고는 예방 가능하다.
- ③ 영아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복종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29. 다음 중 놀이감을 소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슈퍼타이 등의 세제 ② 희석된 락스와 미지근한 물
- ③ 삶기 ④ 잘 모르겠다

30. 귀하는 영아 안전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 ① 매우 잘 안다. ② 약간 안다. ③ 보통이다.
- ④ 약간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안전지각◀

다음은 부모님들의 영아 안전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는 자녀의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하여 얼마만큼 의식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② 조금 의식한다.
- ③ 항상 의식한다. ④ 매우 심각할 정도로 의식한다.

2. 영아가 다음의 원인, 대상으로부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문항	구분	거의 없다	다소 없다	보통 이다	다소 많다	아주 많다
1	추락					
2	화상					
3	간힘					
4	전기쇼크					
5	중독					
6	익사					
7	쇼크(충격)					
8	교살(목조임)					
9	화재					

<대상>

문항	구분	거의 없다	다소 없다	보통 이다	다소 많다	아주 많다
1	자동차					
2	옷과 신발류					
3	가구					
4	계단					
5	문과 창문					
6	뜨거운 물과 액체					
7	전기제품 및 전기콘센트					
8	식물과 나무					
9	난로 및 히터					
10	작은 장난감과 다른 작은 물건					
11	비닐 백(비닐종이)					
12	세제 및 화학약품					
13	줄과 끈					
14	수영장과 바닷가					
15	칼, 가위 등 날카로운 물체와 도구					
16	개 및 애완동물					
17	놀이용 탈 것들					
18	놀이시설(미끄럼틀, 시소 등)					
19	성냥과ライター					
20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기타◀

최근 가정에서 영아에게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는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확한 정보 수집을 원하오니 가능한 한 자세히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의 기억을 돕기 위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의 예를 드리오니, 참조하시고 작성해주세요.

<예>

- 뼈가 부러질 뻔한 사고
- 찢림이나 베임 사고
- 약품이나 약물 등의 중독사고
- 뜨거운 수도꼭지로 인한 화상사고
- 개나 고양이 등에 물린 사고
- 귀나 코 등에 이물질이 들어간 사고
- 세탁세제 등의 중독사고
- 동물로 인한 피부염, 발진
- 의자, 식탁 등에서 떨어진 추락사고
- 눈 주위 타박상 사고
- 욕조나 욕실바닥 미끄럼 사고
- 벌레에 심하게 물리거나 쏘인 사고
- 장난감 흡입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
- 전기포트 등으로 인한 화상사고
- 베게, 비닐 등으로 인한 질식사고
- 영아를 안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

(작성해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